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연구

*A Study on Telecommunication Language of
Chinese Korean*

2006년 12월 11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崔 花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연구

指導教授 崔 在 喜

이 論文을 國語碩士學位 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0월 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崔 花

ABSTRACT

| | |
|------------------------------|----|
| 제 1 장 서론 | 1 |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
| 1.2. 선행 연구 | 2 |
|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5 |
| 제 2 장 통신 언어의 개념과 특성 | 10 |
| 2.1. 통신 언어의 개념 | 10 |
| 2.2. 통신 언어의 특성 | 11 |
| 제 3 장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의 분석 | 14 |
| 3.1.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 환경 | 14 |
| 3.2. 표기상의 특징 | 17 |
| 3.2.1. 소리와 관련한 표기 | 17 |
| 3.2.2. 형태와 관련한 표기 | 26 |
| 3.2.3. 문장 부호에 의한 표기 | 35 |
| 3.3. 음운론적 분석 | 43 |
| 3.3.1. 탈락 | 43 |
| 3.3.2. 축약 | 49 |

| | |
|---------------------------|----|
| 3.3.3. 첨가 | 51 |
| 3.3.4. 동화 | 59 |
| 3.3.5. 경음화 | 61 |
| 3.3.6. 두음법칙 | 64 |
| 3.4. 의미론적 분석 | 66 |
| 3.4.1. 다의어 | 66 |
| 3.4.2. 관용표현 | 72 |
| 3.4.3. 의미의 결합 | 75 |
| | |
| 제 4 장 결론 | 81 |
| | |
| <참고문헌> | 84 |

< 표 목차 >

| | |
|--|----|
| <표 1> 중국 조선족이 개설한 주요 홈페이지 | 15 |
| <표 2> 중국 조선족이 ‘다음’에 개설한 주요 카페 | 16 |
| <표 3> 사용 빈도가 높은 이모티콘 | 32 |
| <표 4> 한국과 중국 조선족 한국어의 문장 부호의 차이점 | 36 |
| <표 5> 문장 부호 체계 및 통신상의 쓰임 | 40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88채팅방' 캡처 화면 | 6 |
| <그림 2> 대화창 캡처 화면 | 7 |
| <그림 3> 지웅닷컴 현황 | 8 |
| <그림 4> 다의어의 의미관계 | 66 |
| <그림 5> 도배 캡처 화면 | 69 |

Abstract

A Study on Telecommunication Language of Chinese Korean

Cui Hua

Advisor : Prof. Choi Jae-hee Ph.D.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nd describe the languag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notational characteristic, and phonological, and semantic respect. Investigating the communication language of the Chinese Koreans, I'll connect it with the research result of the communication language of Korea.

The Chinese Koreans began to practice the internet-related work in 1994, and now they are equipped with the conditions that the communication language can exist. Therefore, as they can speak both Korean and Chinese, it is possible to study the communication language, which is communicated in Korean.

As the notational characteristics, the notations by sound, form and sentence mark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notational method of Chinese was simpler than that of Korean in communication language.

In phonological respect, I investigated deletion, reduction, addition, assimilation, and tensification. and Duim Law. There were no /p/, /t^h/, and

/k^h/ insertions, which arise in the final syllable position in the Korean communication. And there was no /n/ insertion, which changes ending /-nik'a/ into [-nink'a] and [-nink'an].

Glide /j/ addition exists, but [je] phenomenon, which is added to /e/ does not exist. And sometimes the use of vocabularies by deletion was found, but it was not productive. There also exist overapplied lenis.

In semantic respect, there were polyseme and compositionality. But Inter-language productivity in meaning was very productive, but Korean was not.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hat it tries to study the communication language of the people who live abroad.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1, I provide introductory remark about this thesis.

In Chapter 2, I'll describe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communication language.

In Chapter 3, I'll reveal the languag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notational characteristic, and phonological, and semantic respect. Investigating the communication language of the Chinese Koreans, I'll connect it with the research result of the communication language of Korea.

Chapter 4 is a concluding summary of this thesis.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통신 언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를 표기와 음운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분석·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할 때 한국 통신 언어의 연구 성과와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중국은 1990년에 인터넷 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16년 동안 지속되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1억 1,100만 명이었고 접속된 컴퓨터 수는 4,950만 대, 도메인 수는 259만 2,410개, 사이트 수는 69만 4,200개로 집계되었다¹⁾.

중국 조선족²⁾의 경우, 연변(延邊)³⁾ 체신국을 예를 들면 1994년에 인터넷 업무를 시작하여 1990년대 말에 PC방이 처음으로 나타났다⁴⁾. 2000년까지 개설된 웹 사이트는 30개 정도이고⁵⁾ 사이트들은 한글판과 한자판을 모두 제공한다. 중국 조선족의 인터넷 사용은 중국 기타 지역에 비해 한국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중국 조선족 인터넷 통신 환경은 시간 상, 규모 상, 내용 상 모두 통신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들 사이의 통신 언어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한국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원인으로 한국 통신 언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다민족 사회의 영향, 특히 이중 언어 사회⁶⁾의 특수한 신분과 중국 통신 언어의 영향 및 중국

1)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cnnic.net.cn> 을 참조.

2) 중국 조선족은 주로 중국 동북3성(東北3省)인 길림성(吉林省), 료녕성(遼寧省), 흑룡강성(黑龍江省)에 거주하고 있다.

3)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약칭이다.

4) <http://www.yanbiannews.com/> 2004년 06월 28일.

5) 동아일보 [2000-11-26].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통신 언어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도 보여줄 것이다. 때문에 본고는 중국 조선족 10대, 20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 통신 언어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중 언어 화자의 통신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에도 의의가 있다.

1.2. 선행 연구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정복(2005: 38)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통신 언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나오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왔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190여 편 이상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가운데 일반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이 각각 80여 편으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2004년 2월에는 인터넷 통신 언어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통신 언어가 나타나게 된 동기에 대해 해석하였다. 구현정(2002)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반 형식주의, 전통의 거부, 다양성의 추구, 차별성의 강조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정복(2003⁶⁾)는 통신 언어가 나타나게 된 동기를 다섯 가지, “경제성, 표현성, 오락성, 유대성(紐帶性), 심리적 해방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동기가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통신 언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음운, 표기, 문법, 어휘 분야의 범주에 따라서 통신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다. 임규홍(2000)에서는 컴퓨터 통신 언어의 사용실태를 조

6) 중국 조선족은 한국어와 중국의 한어(漢語)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화자이다.

사·분석하고, 통신 언어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통신 언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음운론적 특성, 형태론적 특성, 어휘론적 특성이 고찰되었다. 그 중 음운론적 특성에는 ‘없애고 줄임’, 덧붙임, 바꿈 등 세 가지 현상이 포함되었고, 형태적 특성에는 섞음말(blend), 줄임말(abbreviation), ‘-님’을 붙이는 현상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어휘적 특성에는 은어(cant)의 사용, 비속어(slang)의 사용, 통신 메타언어(meta-language)의 생성, 상징어(symbolic word)의 사용, 방언(dialect)의 확대, 상징기호(symbolic sign)의 사용 등이 포함된다. 권순희(2001)에서는 컴퓨터의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징과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징에는 발음에 의한 표기상의 변형, 조합된 기호사용, 개성적인 어투의 어휘 양상, 대화 순서와 화제가 고찰되었고, 컴퓨터 통신 대화의 표현 양상에는 구어와 문어의 혼합 양상, 대화의 범위 확정 양상, 공유 문화 형성 양상, 대인적 동기에 따른 의사소통 양상이 고찰되었다. 박동근(2002)에서는 통신 언어의 유형을 표기상으로 달라지는 경우, 말이 달라지는 경우, 언어 운용상의 특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담화적인 기능을 밝히었다. 그 가운데서 표기상으로 달라지는 경우를 ‘말소리의 반영(소리 나는 대로 적기와 현실 발음의 반영을 포함)’과 ‘다르게 적기’로 하위분류하고, 말이 달라지는 경우는 음운·형태변이, 새말(어근창조, 합성, 과생과 역과생을 포함), 의미 전이, 통사 변이로 하위분류하였으며 언어 운용상의 특징에는 의성·의태어의 사용, 감정문자(emoticon)의 사용을 포함시켰다. 이승후(2002)에서는 통신 언어의 특징을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신조어(新造語), 음운론적 실태, 형태·통사론적 실태, 이모티콘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의 표기 체계와 다른 통신 언어가 사이버상에서만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병용(2002)에서는 대화방 언어를 대상으로 통신 언어의 일반적 특성과 음운론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에서 동화, 생략, 첨가, 이화, 단모음화, 음운교체 등 현상이 고찰되었다.

또한, 통신 언어의 생산방식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송민규(2001)에서는 PC 통신 언어의 변화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어

휘의 생성과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가정에서 시작하여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폐음절화의 생산규칙을 최적성 이론의 방법으로 밝혔다. 박동근(2003)은 『컴퓨터 통신 언어 사전』(2002)의 조사를 바탕으로 통신 언어의 생산성의 정도를 통신 언어의 형태 범주적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론으로 어휘 층위의 통신 언어 생성에서 ‘형태변이형’은 주로 부사나 감탄사 등과 같은 범주에서 나타나며 합성법이나 과생법에 의해 새말을 만드는 경우 ‘-방’이나 ‘-즐-’, ‘-당’과 같이 특정 형태의 어간이나 접사가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어근 창조로 만들어진 새말은 대부분 흉내말이고, 조사보다 어미가 높은 생산성을 보였으며 어미에 어말 자음을 첨가하는 변이형은 ‘ㅇ>ㅁ>ㅂ>ㅅ>ㅇ>ㅂ>ㅅ’의 순서로 생산성에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신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이정복의 연구 성과가 뚜렷하다. 이정복(1997)은 컴퓨터 통신에 나타난 외국어와 약어의 사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정복(2000)은 통신 언어에 나타난 ‘-님’의 사용과 의미 분석을 하였다. 이정복(2003_ㄴ)은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실제 게시 글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 통신 언어의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정복(2004)은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한국어 경어법이 어떤 특성을 보이면서 통신 화자들의 언어 사용전략에 이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정복(2005)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신 언어를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다룰 수 있는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외국 통신 언어와의 비교 연구도 진척되고 있다. 유학수(2001)은 러시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통신 언어에 대해 분석하였다. 러시아 통신 언어에 나타난 음가 탈락, 모음보태기, 소리 및 음절 환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기, 차용된 외래신조어가 차용 시 원어보다 의미가 축소되는 경향, 축약형, 생략어, 형태의 자의적인 변이형, 감탄사의 ‘남용’, 주어 및 접속어의 생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고찰되었다. 이진성(2003)은 한국과 미국의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특징적 양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윤상한(2003)은 한국과 일본의 통신 언어의 용례를 음운, 표기, 어휘, 문법 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그 원인을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이 아닌, 통신환경이 만들어낸 사회방언적 유사성으로 보았다.

이상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 통신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통신 언어가 나타나게 된 동기에 대해 분석하거나 음운, 표기, 문법, 어휘 분야의 범주에 따라서 그 특성과 기능을 연구하였다. 또한, 언어학적 이론방법을 이용하여 통신 언어의 생산방식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도 시도하였으며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외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로 러시아 통신 언어가 분석되었고, 한국 통신 언어가 외국 통신 언어와의 비교연구로 미국, 일본 통신 언어와의 비교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 외에 거주하는 한국어권(韓國語圈)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전형적인 한국어권에 속해있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고 중국 조선족 인터넷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외에 거주하는 한국어권 지역 통신 화자가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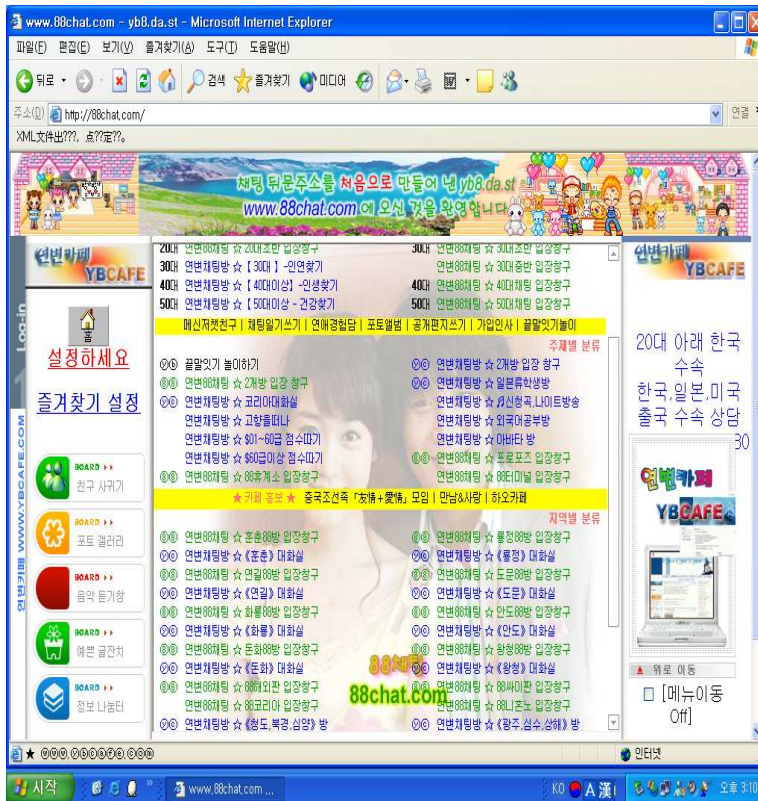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10대와 20대가 즐겨 이용하는 홈페이지, 카페에 올린 게시글과 채팅방에서 진행되는 채팅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이고, 채팅방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외한 기타 홈페이지의 자료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작성된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수집한 것이다. ‘중국조선족학생센터’,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88채팅방’, ‘지웅닷컴’ 등 네 곳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인터넷 모임 게시판을 포함시킨다.

‘중국조선족학생센터(Korean Chinese Students'Center)’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이다. 회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일

부 사회인이다. 회원의 주류는 대학생이다.⁷⁾ 영문약칭으로 'ksc'라 부른다. '만남의 광장 중국연변카페'는 한국 '다음' 홈페이지에 개설된 카페로서 회원수가 23,788 명에 달한다⁸⁾. 이 카페에서 회원들은 자료를 공유하고 동아리를 조직하고 게임과 오락을 즐긴다. 본고는 'ksc'와 '만남의 광장 중국연변카페'의 게시판을 대상으로 표기, 음운, 의미면에서 통신 언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하여 수집하였다.

'88채팅방'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인지도가 높은 채팅방 중의 하나이다. 캡처 화면을 통하여 채팅방의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88채팅방 화면



7) 중국 각 지역에 흩어져 취직생활을 시작한 10대, 20대의 사회인들도 선배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8) 2005년 12월 기준.

<그림 1>에서 보면 '88채팅방'은 연령에 따라 10대, 20대, 30대, 40대 창구로 분류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연길(延吉), 도문(圖們), 화룡(和龍), 돈화(敦化), 안도(安圖), 왕청(汪淸), 훈춘(琿春), 룡정(龍井)>, <청도(靑島), 북경(北京), 심양(沈陽)>, <광주(廣州), 심천(深圳), 상해(上海)> 등 대화실⁹⁾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흥취나 목적에 따라 회원들이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룹의 대화방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접속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센 채팅방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그림 2>와 같이 실시간 대화를 캡처하고 표기, 음운, 의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자료를 선택하여 수집·정리하였다.

<그림 2> 88채팅방 대화창 화면



9) 조선족이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는 연변인 경우, 8개 지역으로 세부 분류해 두었고 기타 지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끼리 묶어서 하나의 대화방을 이루었다.

‘지용닷컴’은 중국 조선족 회원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주목적으로 한 모임이다. 접속자수는 121,452 명에 달한다.¹⁰⁾ <그림 3>을 통하여 ‘지용닷컴’의 현황과 홈페이지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지용닷컴 현황



10) 2005년 12월 기준.

<그림 3>에서 보다시피 홈페이지의 구성이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뮤직이나 동영상에서 ‘한국, 중국, 조선족’이라는 세부 분류를 했다. ‘지용닷컴’은 한국 인터넷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이트이다. 때문에 본고는 ‘지용닷컴’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한국 통신 언어의 영향을 입은 자료를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위의 자료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展開)된다.

제2장에서는 통신 언어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먼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의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 통신 언어의 연구와 연관시키면서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의 표기상의 특징과 음운론적 분석, 의미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4장은 결론 부분이다.

제 2 장 통신 언어의 개념과 특성

이 장에서는 통신 언어의 개념을 밝히고 통신 언어의 특성을 밝혀 제3장에서 진행하게 될 통신 언어에 대한 분석에 토대를 마련한다.

2.1. 통신 언어의 개념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에서는 통신 언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개념이 제시되어있다.¹¹⁾

- (1)ㄱ. 넓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휴대전화에서 문자로 표현되는 모든 언어이고,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서 표현되는 언어만을 이른다(전병용 2002).
- ㄴ. 인터넷 통신 언어(통신 언어/통신어)란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를 말한다(이정복 2003).
- (2)ㄱ.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음성·문자이다(권연진 2000).
- ㄴ. 넓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언어이고,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언어로, 일반 언어의 표기 또는 음운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정형성을 가진 말이다(박동근 2001).

11) 1990년 이후 온라인상에서 엔세대(Network世代)라고 불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흔히 통신 언어라고 불렀다.

ㄷ. 통신 언어는 통신상에서 쓰이는 글을 말한다. 이는 표준 언어는 물론 일상 언어와도 다르며 속어나 은어와도 다르다. 이들 통신 언어는 비문법적 음절결합, 터무니없는 음절축약, 엉터리 연음표기, 마구잡이식 어휘합성, 일반인은 뜻을 잘 알 수 없는 이모티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문법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상에서 일반적인 말로써 글을 올린 경우는 통신 언어로 취급하지 않고 단지 컴퓨터 통신상에서 모니터에 써 놓은 일반 글로 간주한다(박철주 2006).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통신 언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친다. (1)은 통신 언어가 사용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다름에 따라 나타난 개념들이다. 통신 언어를 인터넷에서만 사용되는 통신 언어로 한정 할 것인지, 아니면 휴대폰 등 기타 매개(媒介)도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통신 언어가 컴퓨터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 기원한 것을 인정하는 기초 상에서 통신 언어가 기타 매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 (2)는 통신 언어에 기존의 언어규범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개념들이다. 본고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를 연구하는 관계로,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까지 고찰범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통신 언어로 정의하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신 언어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한다. 통신 언어는 인터넷 통신상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매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동원되는 모든 종류의 언어를 말한다.

2.2. 통신 언어의 특성

통신 언어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주로 파악되어왔다.

먼저,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기존언어와 다르다. 통신 언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물리적 실체는 다 은폐된다. 극단적으로는 통신의 대상마저 은폐된다. 은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첫째, 익명성이다. 통신 언어의 익명성은 통신 언어가 언어 규범에서 벗어나고, 담화에 있어서 도덕성이 상실하거나 은어와 같은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임규홍 2000: 38). 둘째, 상징성이다. 통신 언어에는 음성, 표정과 동작이 담기지 않는다(전병용 2004: 2). 따라서 통신 언어에서는 자판의 부호나 특수 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담화자의 심리적 상태나 대상의 묘사, 그리고 언어적 표현까지 기호화하고 있으며 상징어(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임규홍 2000: 41). 셋째, 평등성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국경, 인종, 성별의 벽을 넘어 같이 교류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담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임규홍 2000: 36).

다음으로, 통신 언어의 언어매체적(言語媒體的) 특성¹²⁾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속도성이다. 통신 언어의 속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된다. 하나는, 통신 언어는 기존언어에 비해 전파속도가 빠르다. 이정복(2003: 49)에서는 통신 언어의 빠른 전달성과 즉시성의 특성 때문에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음절 줄이기, 붙여 적기 등이 있다고 제기하였다. 다른 하나는, 언어로서의 통신 언어는 창조·전파되고 안정된 형태로 발전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형태로 변형·발전되거나 소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길지 않다. 통신 언어의 이러한 특징은 통신 언어 사전을 편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되었고 통신 언어 사전의 실제 이용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한다. 둘째, 양방향성(兩方向性)이다. 인터넷 통신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 매체와 달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양방향성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양방향성의 특성 때문에 ‘대화(對話)’가 가능하게 되었다.¹³⁾

그리고 통신 언어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¹⁴⁾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반 형

12) 한동완 「言語媒體의 특성으로 본 인터넷 通信言語」,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13) 구체적인 내용은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도서출판, 2003)을 참조.

14) 구체적인 내용은 구현정, 「통신언어-언어 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국어학』, 39, 2002, 261-274쪽을 참조. 구현정(2002)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성을 반 형식주의, 전통의 거부, 다양성, 차별성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차별성을 반 형식주의, 전통의 거부, 다양성의 결과로 나타난 특성으로

식주의이다. 임규홍(2000: 39-40)에서는 통신 언어의 반 형식주의를 ‘탈 규범성’으로 해석하면서 탈 규범성은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탈규범적 욕구와 자신의 언어 규범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모두 작용한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통신 언어의 반 형식주의적 특성은 맞춤법의 파괴현상으로 표현된다. 둘째, 전통의 거부이다. 신회삼(2004: 210-211)에서는 전통 거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바 문자를 다양하게 변용하는 창의적 효과는 창의성, 영재성 등을 향상시키고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기존의 문자언어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해졌다고 제기하였다. 통신 언어의 전통 거부의 특성은 기존의 언어규칙(음운규칙과 통사규칙)의 파괴, 개념의 전이와 같은 의미현상으로 표현된다. 셋째, 다양성이다. 통신 언어의 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하나는, 담화 주체의 다양성이다(임규홍 2000: 35). 통신 언어의 담화의 주체는 선택에 따라 공간과 시간을 넘어설 수 있고 담화의 주체가 쉽게 바뀌면서(청자와 화자의 자리가 쉽게 넘나든다) 이야기 폭도 넓어지고 다양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언어형태의 다양성이다. 통신 언어에는 과거의 언어, 여성어¹⁵⁾, 아동어, 방언, 은어, 비속어, 외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통신 언어의 사회 방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인터넷 통신 언어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특정 세대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인터넷 통신에 접속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어와 구별되는 변이어(變異語)인 점에서 사회 방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통신 언어의 구체적인 모습이 통신 화자들의 세대, 성, 언어 사용목적과 전략 등에 따라서 다양한 내적 변이를 보이는 점에서 사회 방언으로 볼 수 있다(이정복 2005: 41-42).

보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15) 비격식 높임의 ‘-어요’체의 사용을 대표로 하는 일련의 언어현상을 가리킨다(구현정, 2002를 참조).

제 3 장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 대한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를 표기와 음운론, 의미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해의 편리를 위하여 먼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환경을 소개하고, 또한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3.1.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 환경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 환경을 인구분포와 언어 환경, 인터넷 이용 상황과 이용 목적, 인터넷 구축 현황(現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중국 조선족의 인구분포와 언어 환경을 살펴보겠다. 중국 조선족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한민족의 대 이동(大移動)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¹⁶⁾ 2000년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지린성(吉林省), 료닝성(遼寧省), 허이룽장성(黑龍江省)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은 192만 3,842명이다. 그 중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¹⁷⁾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중국의 통용어인 한어(漢語)를 사용하지만 지역 범위 내에서는 한국어로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진행한다. 즉, 이 지역은 전형적인 한국어권(韓國語圈) 지역이다. 기타 지역¹⁸⁾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들도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에 비해 한어(漢語)를 많이 쓴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황과 이용 목적을 옌지시(延吉市)

16) 1906년까지 중국 조선족은 서쪽의 안둥, 씨양징(興京), 둔화(敦化) 일선의 남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서북쪽으로는 후이파허어(輝發河), 동쪽으로는 닝구타(寧古塔)과 무리잉허어(穆稜河) 일선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1907년에는 연변을 중심으로 하여 로예에리잉(老爺峯)을 넘어 목단강연안과 삼성(三姓)지방 즉 동북경내로 점차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동북에 이주한 조선족 인구가 부쩍 늘어났다(‘중국조선족의 전통문화와 삶의 현상’에서 발췌)

17)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지린 성(吉林省)의 동남부에 있는 연변(이전의 간도 지역)에 설립된 중국 내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다.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옌지(延吉), 투먼(圖們), 둔화(敦化), 룡정(龍井), 훈춘(暲春), 허룡(和龍) 등 6 개 시(市)와 안투(安圖), 왕칭(汪淸)의 2 개 현(縣)을 관할하고 있으며, 자치주의 소재지는 옌지이다.

18) 주로는 동북 3 성인 지린성(吉林省), 료닝성(遼寧省), 허이룽장성(黑龍江省)을 가리킨다.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연길시 시민들이 컴퓨터문화를 접하고 보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PC방이다. 조사¹⁹⁾에 의하면 중·고등학생 중 PC방에 간 적이 있는 학생이 90%, 자주 다니는 학생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엔지시의 10대, 20대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게임에 80%, 채팅에 15%, 학습자료 검색에 5%를 차지하였다. 엔지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학생들의 인터넷 활동은 재미와 오락성이 위주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인터넷의 구축 근황(近況)을 요해하려고 중국 조선족 사이트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표 1> 중국 조선족이 개설한 주요 홈페이지

| 사이트 주소 | 명칭 | 접속 자수 | 내용 분류 | 기타 |
|----------------------------------|--------------|----------|---|--------------------|
| http://moowoo.x-y.net/index.html | 따따산 무우네 집 | 363,166 | 공지사항/무우이야기/사진게시판/코친게시판/연변가이드/자작글마당/자유게시판. | |
| http://www.hahabox.com/ | 하하박스-엽기 | | 커뮤니티/글방/MY비결/질문,건의/자료실/자료신청/엽기이미지/엽기동영상/플래시/유머/뮤직/영화. | |
| http://guxianglove.com/ | 고향정-조선족 커뮤니티 | | 첫페이지/미니홈피/고향웹터/컴공부방/동회회/메신저/고향정홈/커뮤니티/자료실/고향사진. | |
| http://www.yanbianet.com/ | 연변넷 | 59,743 | 연변넷홈/커뮤니티/컨텐츠/글찾사/IT자료실/비즈니스/갤러리/계례의숨결/강좌실. | |
| http://www.xita.com.cn/ | 서탑타운 | | HOME/심양소개/정보교류/휴식공간/앨범감상/커뮤니티/자료실/대화방. | 심양 최초의 조선족 정보 사이트. |
| http://www.yb49.com/ | 한국 상품 구매대행 | | 쇼핑/공동구매/웹터/커뮤니티/갤러리/회원클럽. | 한국 상품 구매를 대리해줌. |

주: 200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

<표 1>은 중국 조선족이 개설한 주요한 홈페이지 여섯 개를 선택하여 살펴본

19) <http://yanbian.yemooon.net/datas/viewbody.php3?code=datas2004&number=1540&keyfield=class&key=acad>

것이다. ‘하하박스-엽기’, ‘고향정-조선족커뮤니티’등 홈페이지는 중국 조선족 회원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바 접속자 수가 많고 내용분류가 구체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따산무우네집’은 ‘무우’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 운영자를 중심으로 조선족 회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개인 홈페이지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개인홈페이지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다. ‘서탑타운’은 심양(沈陽)²⁰⁾에 거주하는 회원이 위주이고 지역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개설된 홈페이지이다. ‘한국상품구매대행’은 한국 상품에 관심이 많은 조선족 회원들이 참여하는 홈페이지로서 쇼핑물에 가깝지만 쇼핑 목적 이외에 커뮤니티도 하는 특징이 있다. <표 1>에서 보다시피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접속자수도 비교적 많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작용한다.

중국조선족의 인터넷 활동은 홈페이지 이외에 한국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바 <표 2>와 같다.

<표 2> 중국 조선족이 ‘다음’에 개설한 주요 카페

| 카페주소 | 카페이름 | 회원 수 | 개설 날짜 |
|--|--------------|--------|-------|
| http://cafe.daum.net/chufa21 | 조선족들의 아담한모임 | 16,363 | 2002 |
| http://cafe.daum.net/meiren320 | 연변에 얼짱 | 15,408 | 2003 |
| http://cafe.daum.net/yongyuande baobiao | 연변 조선족 사랑 | 4,117 | 2003 |
| http://cafe.daum.net/yanji123 | 中國朝鮮族대모임 | 59,530 | 2003 |
| http://cafe.daum.net/cktown | 중국 조선족 모임 | 2,436 | 2003 |
| http://cafe.daum.net/cnyanbianliu |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 26,817 | 2003 |

주: 200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

20) 중국 료닝성 썬양시(沈陽市)를 가리킨다.

<표 2>에서 보면 중국 조선족이 개설한 카페는 개설된 시간이 오래되지 않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인터넷이 1990년대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2003년을 전후로 홈페이지와 카페, 대화방 등 인터넷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이해하기 쉽다. 접속자수는 적게는 2,436 명에서 많게는 59,530 명에 이르러 일정한 군집성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채팅방 문화도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변채팅’과 ‘88채팅방’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이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조선족의 언어 환경은 인터넷 통신 언어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되는 통신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었고, 일정한 군집성을 띤 분포 환경은 조선족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더욱 가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재미와 오락성이 주요한 이용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는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와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좁힐 수 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성숙되어 있는 인터넷 구축 현황은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3.2. 표기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표기를 소리와 관련한 표기와 형태에 따른 표기, 문장 부호에 의한 표기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2.1. 소리와 관련한 표기

통신 언어에서 소리와 관련한 표기는 기존의 맞춤법이나 형태소의 완성성(完整性)을 파괴하고 소리 위주로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먼저, 통신 언어에는 경제성의 원리²¹⁾를 기반으로 음절에서 일부 음소를 생략하여 표기하거나, 경음을 평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 (3)ㄱ. 호물호물한 초디비낮은데~(호물호물 초두부²²⁾같은데)
 - ㄴ. 메신저 ㅏ 브 탁(메신저를 부탁해요)
 - ㄷ. 휴,,스타무(휴, 싫다면)

(3)은 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글의 초성만을 간략히 표기한 것이다. (3ㄱ)는 의태어 ‘호물호물’의 첫 음절과 셋째 음절인 ‘호’의 초성 ‘ㅎ’를 취하고 기타 음절은 그대로 표기하였다. (3ㄴ)는 ‘부탁’의 첫 음절 ‘부’의 초성 ‘ㅂ’를 취하였고, (3ㄷ)는 ‘싫다’의 첫 음절의 초성 ‘ㅅ’만 취하고 뒤 음절 ‘다’는 앞 음절의 말음 ‘-ㅎ’에 의해 유기음화 된 ‘타’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기 방법이 언급되었다.

- (4)ㄱ. 한 사십대 같았심다..크드 <한국>
 - ㄴ. 타 방송사는 무료로 강 보면 되는데 썩썩(썩썩) <한국>

(4)는 전병용(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발음은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표기는 과감하게 생략한 표기로 분석하였다.

- (5)ㄱ. 으 구러야(오, 그래?)
 - ㄴ. 콤물 ㅣ 막쫄쫄 짜 ㅏ지..(코물을 질질 짜다)

(5)는 모음을 취하여 표기한 예이다. (5ㄱ-ㄴ)는 각각 ‘오’, ‘이’에서 모음‘ㅏ’, ‘ㅣ’를 취하여 표기하였다.

21) 경제적 동기는 기본적으로 자판에서 글자 입력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한 언어경제성(言語經濟性)에 바탕을 둔다.

22) 중국 음식의 일종으로서 한국의 ‘순두부’와 비슷한 두부이다.

- (6)ㄱ. ㅈ ㅈ ㅈ ㅈ ㅈ ㅈ ㄹ ㅈ ㅈ ㅈ ㅈ ㅈ (자거라)
 ㄴ. 나누 그기루 모르는데끼끼 (나는 거기를 모르는데)
 ㄷ. 나두 ㄱ.ㄱ (나도)

(6)은 마지막 음절의 모음을 취하여 반복 사용하여 소리의 여운을 표기하였다. (6ㄱ)는 음절 ‘자’와 ‘라’의 모음 ‘ㅈ’를 취하여 반복 사용하였고, (6ㄴ)는 마지막음절 ‘데’의 모음 ‘끼’를, (6ㄷ)는 마지막 음절 ‘두’의 모음 ‘ㄱ’를 취하여 반복 사용하였다.

- (7)ㄱ. ㅎㅎㅎ ㅎ 해아이, 뜨는날드있 ㄴ | (하하, 해가 안 뜨는 날도 있니?)
 ㄴ. 그쪽나이가 가(그 쪽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ㄷ. 글쎄요(글쎄요)

(7ㄱ)에서는 음절말음 ‘-쓰’를 같은 음소를 갖는 음절말음 ‘ㅅ’로 표기하였다. (7ㄴ)는 경음 ‘ㅈ’ 대신 평음 ‘ㅈ’로 표기하였고, (7ㄷ)는 경음 ‘쓰’ 대신 평음 ‘ㅅ’로 표기하였다. 타자수를 줄이고 타자의 번거로움을 덜려는 노력으로 경음을 평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쓴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기 방법이 언급되었다.

- (8)ㄱ. 어쨌다고(어쨌다고) <한국>
 ㄴ. 나쁜가(나쁜가) <한국>

(8)은 임규홍(2000)에서 제시한 예인데 비슷한 소리일 경우 가능한 자판의 동선과 활동이 적은 쪽의 표기를 활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통신언어는 표현의 동기²³⁾를 기반으로 발음의 유사성에 의해 다른 음소나 숫자로 바꾸어 표기하여 개성표현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는 두 음소가 어

23) 표현적 동기는 다양한 방식의 언어사용을 통하여 자신을 잘 드러내고, 상대방의 관심을 얻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면 음운 자질 값을 공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9)ㄱ. 편질이(머저리)

ㄴ. 돈이없서요~~~~(돈이 없어요)

ㄷ. 들어와보시지?(들어오시죠?)

(9ㄱ)는 ‘머저리’의 첫 음절 ‘머’의 초성인 파열음/m(ㄹ)/를 같은 파열계열의 자음 [p^h(ㅍ)]로 바꿔 표기하였고, (9ㄴ)는 ‘없-’의 말음 /p(ㅂ)/를 [m(ㅁ)]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9ㄱ-ㄴ)의 [p^h], [m[~]]는 모두 [+lab]자질을 갖고 있기에 교체 가능하다. (9ㄷ)는 말음 ‘-ㄹ’의 음소가 /l/인 점을 이용하여 ‘들어와-’의 ‘들’을 ‘들’로 표기하여 상대방의 주의력을 끈다.

(10)ㄱ. 그래요 전화있나요(그래요. 전화가 있을까요?)

ㄴ. 나 18살임다 말낫우쇼(나는 18살입니다. 말을 나주세요.)

ㄷ. 알아맛차라(알아맞혀라)

ㄹ. 맛은 상상에 맞김--;(맞은 상상에 맞기겠어요)

(10)에서 밑줄 그은 음절의 말음은 모두 공통된 음소 ‘t[~](ㄷ)’이다. ‘ㄷ, ㅅ, ㅌ, ㅈ, ㅊ, ㅍ, ㅎ’가 음절말에서 모두 [t[~]]로 발음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10)과 같이 음절 말 자음들을 바꾸어 사용하여 개성을 표현한다.

(11)ㄱ. 외요(왜요?)

ㄴ. 울 ㅇ | 서방닐(우리 서방님)

ㄷ. ㄴ | 들어먹어(너 들었어?)

(11)의 예들은 음운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음운 탈락과 음운 삽입 및 음운 위치 변화현상이다. 이러한 ‘음운 현상’들은 발음상의 음운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표기의

특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11ㄱ)은 ‘왜’의 /ɛ/음을 탈락시키고 단순모음 ‘외’로 표기하였다. (11ㄴ)은 ‘니’의 /i/음을 발음이 유사한 [iy]로 표기하여 이질적인 표기효과를 얻었다. (11ㄷ)은 무표적인 모음 /i/를 유표적 모음 [u]로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표기의 변화가 거듭 사용되는 과정에서 음운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 통신 언어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 (12)ㄱ. 오디(어디) <한국>
 ㄴ. 자릭(자리) <한국>

(12ㄱ)은 임규홍(2000)에서 제시된 예이고, (12ㄴ)은 박철주(2006)에서 제시했던 예이다. 임규홍(2000)에서는 (12)의 현상을 소리에 변화를 주어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뜻에 있거나 단순한 변화를 줌으로써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려는 기대에서 나타난 것으로 채팅언어의 입말 특징이 바탕에 깔려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박철주(2006)에서는 (12)의 현상을 모음변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통신 언어에서의 모음변이는 음운론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통신 언어에서만 찾아지는 독특한 방법의 어휘생성이라고 하였다.

- (13)ㄱ. 886
 ㄴ. ㅁㅁ 2
 ㄷ. 하늘이시여님 울다 웃지 마 삼 ~3=3=3=3

(13)은 숫자를 발음했을 때의 소리를 채택하여 표기한 예들이다. (13ㄱ)은 중국어에서 갈라질 때 인사 ‘拜拜了(paibailǎo)²⁴⁾에서 각 음절의 초성 ‘p’, ‘b’, ‘l’이 숫자 ‘8(pa)²⁵⁾과 ‘6(lju)²⁶⁾을 발음할 때의 초성과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숫자로 표기하였다. (13ㄴ)은 영어에서 갈라질 때 인사 ‘byebye’를 한글로 ‘빠빠이’라고 음차한 뒤

24) 영어 ‘byebye’의 중국식 발음
 25) 8은 중국어에서 바(pa)로 발음한다.
 26) 6은 중국어에서 류(lju)으로 발음된다.

첫 두 음절의 초성 ‘ㅃ’를 취하였다. 그리고 숫자 ‘2’의 발음이 한글 문자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숫자로 표기하였다. (13ㄷ)는 통신 언어에서 종결어미의 기능으로 쓰이는 ‘삼’을 숫자 ‘3’으로 표기한 예이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로 대체하여 한 표기방법은 (14)와 같다.

- (14) ㄱ. 판넴들도10002 오셈 <한국>
 ㄴ. 6학논 2반 짱?! 9럼 이만~♡★☆☆ <한국>

(14)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로서 한글을 숫자의 음으로 음차 하는 방법으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적기를 통해 차별성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통신 언어는 유대 강화의 동기²⁷⁾를 바탕으로 구어를 최대한 반영한 표기 방법이 많이 쓰인다.

- (15) ㄱ. 지빈데(집인데)
 ㄴ. 기래 핵고 땡기니(그럼 학교 다녀?)
 ㄷ. 느깁가(누구세요?)

(15)는 한국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한 예이다. 이는 기존의 맞춤법을 파괴하는 표기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15ㄱ)는 ‘집인-’을 연음시킨 발음대로 ‘지빈-’으로 표기하였고, (15ㄴ)에서 ‘학교’는 활음탈락을 거쳐 ‘고’로 표기하였다. (15ㄷ)는 ‘누구인가’에서 ‘누구’가 뒤에 오는 음절 ‘인’의 발음 /i/에 의해 움라우트를 거쳐 ‘누기’로 되고 ‘누’의 모음 /u/가 무표적 모음 [i]로 교체된다. 그리고 ‘-인가’의 음절말음 /n/이 뒤에 오는 /k/에 의해 [ŋ]으로 위치동화를 겪고, 다시 음운탈락을 거쳐 ‘느깁가’로 발음되는데 이것을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의 연구에서 유대 강화의 동기로 나타난 발음 그대로 적는 표기 방법을 살펴보면 (16)과 같다.

27) 통신 언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친해지려는 의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16ㄱ. 추카(축하) <한국>

ㄴ. 한국 바깸(한 곡밖에) 안볼르경... <한국>

(16ㄱ)는 임규홍(2000)에서 제시한 예이고, (16ㄴ)는 전병용(2004)에서 제시한 예이다. 임규홍(2000)에서는 (16ㄱ)의 현상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으로 쉽게 적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전병용(2004)는 (16)의 표기법은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 대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유대를 강조하는 표기방법의 하나로 중국어를 직접 사용하는 현상이 있다. 중국 조선족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화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한국 통신 언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17)ㄱ. 크리스마스 선물로 누가 "无极"영화표를 양말속에 쑤셔넣어 줬으람,,

(영화제목 : '무극')

ㄴ. 그래,다음소! 내 包場아니,包館할게여!

(장소를 빌리다)

ㄷ. 올해는 개해 우리들의 本命年이구나.

(본명년: 태어난 해와 띠가 같은 해)

ㄹ. 死猪不怕水烫! 盡管來吧, 呵呵

(죽은 돼지는 뜨거운 물에 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울 것이

없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

(17ㄱ)는 영화제목을 인용한 경우이고, (17ㄴ)는 동사를, (17ㄷ)는 명사를 중국어로 표기한 예이다. (17ㄹ)는 중국어로 구사된 문장(숙어)이 독자적으로 표기된 예이다. (17)의 예들은 이중 언어 화자인 중국 조선족 화자가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표기로 옮긴 것이다.

(18)ㄱ. 238-****

시오우링통입니다.

(小靈通: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만 통화 가능한 휴대폰)

ㄴ. 바다구경 잘하고 감니다.쎬쎬

(謝謝: 고마워요)

ㄷ. 홀라.. 즐

(好了: 됐어요)

ㄹ. 안녕 대화 까쁘까나나

(干不干呢: 할까?)

(18)은 한글로 중국어 발음을 차용하여 표기한 방법이다. (18ㄱ)에서는 중국어로 된 명사, (18ㄴ)에서는 형용사, (18ㄷ-ㄹ)에서는 문장이 한국어로 표기되었다. 중국어 이외에 일본어와 영어로 된 표기도 많이 쓰인다.

(19)ㄱ. 숨님, 저랑 비슷하게 새로오신 분이죠?..도랏쓰~!

(약수)

ㄴ. 미투^^

(me too)

ㄷ. 럽-----love???

(19ㄱ)는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예이고, (19ㄴ)는 영어 'me too'를 한글로 표기한 예이다. (19ㄷ)는 영어 'love'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옆에 직접 영문까지 표기하여 '럼은 love를 가리키냐?'는 뜻을 표현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20)과 같은 표기 방법이 소개되었다.

(20)ㄱ. 오케오케 안녕

<한국>

ㄴ. 백설공주와 웅삼이의 럼스터뽀~

<한국>

(20)은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규범성을 파괴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통신 언어에서 외국어도 일상어처럼 사용되며 영어를 영문으로 적거나 영어를 한글로 적어 하나의 문장처럼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해방 동기²⁸⁾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발음하기 어렵거나 발음이 가능하지 않은 문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자 표기들은 의성어나 의태어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속삭임이나 중얼거림, 울동이나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21)ㄱ. <올라라~!올라라~!!파리파리 객쩍뻗~>

ㄴ. 띠불띠불 =,= 멋지게 할라니까 생각이 않떠올르는구남

ㄷ. 다다다다 달아가서 그 세치네르 데깅 잡아먹교

ㄹ. rena 님 빨리 쉽호흡 후쌔우쌔 단숨이 읽다니 ㅋㅋㅋ

(21ㄱ-ㄴ)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으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다. (21ㄷ-ㄹ)는 의성어와 비슷한 언어형식으로 빠른 속도를 표현한다.

(22)ㄱ. 울화화~

ㄴ. 음향향~

ㄷ. 큐~~~~~굽다

ㄹ. 나랑 사겨...

싫음 뒤져 카카(나와 사귀자, 싫으면 죽어)

ㅁ. 흡ㅍ

(22ㄱ-ㄹ)는 과장되고 괴이한 웃음소리를 표현한 표기이고, (22ㅁ)는 한숨을 짓는

28) 심리적 해방 동기란 통신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억압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틀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느끼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규범에 어긋나는 언어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리를 왜곡된 소리로 표기하고 있다.

3.2.2. 형태에 따른表記

먼저, 형태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가진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의 경우, 흔히 한글 자모의 형태가 외국문자로 대체된다.

- (23)ㄱ. ㄱ ㅏ 말 하지말ㄹㅓ(그 에는 말도 마라)
ㄴ. ㅓ ㅏ ㅓ ~ 야자하메 놀린나래 영젼갯근 or 푸하하.
(야자하면서 골려주는 것이 아주 재밌겠네)

(23)은 영어 문자의 형태가 한국어 문자를 연상시키는 예이다. (23ㄱ)은 모음 ‘ㅏ’를 쓸 자리에 영어 문자 ‘r’로 표기하였다. (23ㄴ)은 한국어의 음절 ‘아’ 대신에 영어 자모의 조합으로 ‘or’를 표기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기 방법이 언급되었다.

- (24) LH계㊸(가)온ㅓㅓ 랑I㊸로ㅓㅓㅓㅓ 랑 <한국>

(24)는 강옥미(2004)에서 제시한 예로서 영어자음의 형태가 한글모음의 형태와 유사하여 쓰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음소나 음절을 갈라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다.

- (25)ㄱ. ㅓ ㅓ ㅓ ㅓ
ㄴ. ㅓㅓㅓ ㅓㅓ(고운 것)
ㄷ. ㅓ | ㅓ | ㅓ | ㅓ | 요게 달긴ㅓㅓ (어, 대드네)

(25)는 문자를 음소마다 띄어서 표기하였다. (25ㄱ)는 강조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25ㄴ)는 마지막 음절 ‘게’를 ‘ㄱ’와 ‘개’로 갈라서 표기하여 ‘게’에 역점을 둠을 말한다. (25ㄷ)는 원래의 발음보다 길게 발음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26)ㄱ. 하아 | (하이)

ㄴ. 하ㅓ(후)

ㄷ. 연기;ㄹ(연길)

ㄹ. 이그-오(이궁)

(26)의 예들은 한 음절의 일부를 갈라 썼다. (26ㄱ-ㄴ)는 한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 표기하였다. (26ㄱ)는 ‘하’를 ‘ㅎ’와 ‘아’로 갈라 표기하였고, (26ㄴ)는 ‘후’를 ‘ㅎ’와 ‘ㅓ’로 갈라 표기하였다. (26ㄷ-ㄹ)는 마지막 음절의 발음을 따로 표기하였는바 (26ㄷ)는 ‘길’을 ‘기’와 ‘;ㄹ’로 표기하였고, (26ㄹ)는 ‘궁’을 ‘그’와 ‘-오’으로 표기하였다. 음절을 해체하여 표기하는 방법은 주목을 끌기 위한 문장형식에 이용된다.

(27)ㄱ. 하 | 쓰 | 해 | 쓰 | 기 | 해 | 기 | 튼 | 스 | 해 | 기 ;(썩썩개²⁹)같은 새끼)

ㄴ. 드 | 해 | 체 | 머 | 함 | 다..챗 | 드 | 아이 | 하 | 능 | 기 | 니 | 같 | 그..

반응으느..기 | 니 | 복 | 버 | 다(도대체 뭘 하세요? 채팅도 안하는 것 같고 반응은 거부기보다 더 느리고)

ㄷ. 기 | 니 | 분 | 느 | 니 | 빠 | 니까. 즐 | 하 | 세요(기분 나쁘니까 들어가세요)

(27ㄱ)는 상대방을 욕하는 말이다. 욕설을 그대로 표기하지 않고 음절을 해체하여 표기하여 완곡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27ㄴ-ㄷ)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나 발화할 때 역점을 두는 음절을 해체하여 표기한 예들이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쓰임이 언급되었다.

29)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사용되는 ‘정신질환자’의 속된 표현.

(28)ㄱ. 훗팅! ㅇ ㅏ ㅈ ㅊ ㅍ ㅇ*

<한국>

ㄴ. ㅂ ㅂ ㅏ ㅂ ㅂ ㅏ ㅇ ㅏ

<한국>

ㄷ. ㅋ ㅋ ㅏ ㅋ ㅋ ㅏ ㅏ 는 ㅈ ㅏ ㅂ ㅏ ㄹ ㅋ ㄷ ㄷ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한국>

(28ㄱ)는 전병용(2004)에서 제시한 예이고, (28ㄴ-ㄷ)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이다. 전병용(2004)는 (28)의 현상을 해체표기로 보고 사람의 눈에 튀어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구현정(2002)에서는 형식적인 것을 거부하고 규범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음절을 해체하여 표기하는 방법에는 또 음절 사이에 부호를 삽입하여 갈라놓는 표기 방법도 있다.

(29)ㄱ.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저도 술을 아주 좋아해요)

ㄴ. 이 글으느 보까나 그래두 뿌듯해집다...(이 글을 보니 그나마 가슴이 뿌듯하네요)

ㄷ. 먼데르 쳐다보니(먼 곳을 쳐다보니)

ㄹ. 매매하매 몽땅 양인 매~(매매 하는 것이 온통 양들 세상이다)

(29ㄱ-ㄴ)는 ‘~’표로 음절 사이를 갈라 표기하여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 (29ㄷ)는 ‘~’을 사용하여 거리감을 강조하였다. (29ㄹ)는 ‘~’을 사용하여 소리의 여운을 나타냈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표기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30)ㄱ. 바~앙~자~앙~니~임~!!!(방장님)

<한국>

ㄴ. 여러부운~부~우~자~되세요오~

<한국>

(30)의 예들은 전병용(2004)에서 제시한 예인데 멀리서 큰 소리로 애타게 부르는 효과와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특히 채팅언어)에서 띄어쓰기³⁰⁾를 무시하는 문장형

식이 많이 이용된다. 띄어쓰기 무시는 답답한 느낌을 주지만 정상적인 표기 형태에 서와는 다른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게 된다. 또한 실시간 대화에서 타수를 줄일 수 있어 대화방 언어에서 많이 쓰인다.

(31)ㄱ. 니누어느마이께끗하야(너는 얼마만큼 깨끗하니?)

ㄴ. 야오갯다메(야, 오겠다면서?)

ㄷ. 난니잼따(난 너가 재밌다)

(31)에서 보듯이 띄어쓰기 무시는 문장 부호의 생략을 동반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표기법을 해체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에서도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32)ㄱ. 나만안테는고야?

<한국>

ㄴ. 말좀많이해라

<한국>

(32)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띄어쓰기의 규정을 파괴하는 현상은 글자를 빨리 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제성의 욕구로 파악하는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된다. 통신 언어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감각을 다른 공간에 있는, 면대면이 아닌 상황에서 표현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모티콘(Imoticon)³¹⁾이 등장한다. 이모티콘은 그림의 축약된 형태로서 감정을 담는, 말하자면 ‘양념’과

30) 띄어쓰기는 문장에서 낱말들 사이를 구분하여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언어적 기능 중의 하나이다.

31) <http://www.emoticonworld.co.kr> : 이모티콘(Imoticon)은 최초로 1980년대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생인 스코트 펠만이 사용했으며 Smiley symbol라고도 한다. PC통신과 인터넷사용 초창기에는 웃는 모습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스마일리(Smiley)로 불리기도 한다. 이모티콘은 국가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것이 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속 추가되고 있으며 전 세계 온라인에서 중요한 사회문화로 자리 잡았다.

도 같은 것이다.

(33)출퇴근 시간도 기본이 2시간인데 **—.—**
4시간씩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다 **—.—...**

(33)에서 ‘—.—’는 심통 났을 때의 표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러면 아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시각적 느낌을 표현한 예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사물의 여러 가지 모양을 본뜬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많다.

(34)ㄱ. 토끼

(..) <한국⇔중국>

ㄴ. 동해안 오징어떼

○:=○;=○:= ○:=

○:=○;=○:= ○:=

○:=○;= ○:= ○:= <한국⇔중국>

ㄷ. 탁구치는모습

(^-^)**pT┌┐?σ(^o^)** <한국⇔중국>

(34)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모티콘을 중국에서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34ㄱ)는 토끼의 특징을, (34ㄴ)는 오징어 떼의 특징을, (34ㄷ)는 탁구를 치는 모습을 그림처럼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이모티콘은 한 번 만들어 반복 사용하거나, 인터넷 시장에서 판매하는 이모티콘 상품을 직접 사서 쓰기도 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이미 작성되어 있는 한국 이모티콘을 복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35)ㄱ. **!!!^.^!!!** 서태지 <한국>

ㄴ. **[^ . ^]** 박경림 <한국>

(35)는 한국 통신 환경에서만 사용되고 중국 조선족 통신 환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예이다. (35)는 한국 유명 연예인의 특징만을 따서 만든 이모티콘이다. 이런 이모티콘은 통신 화자들 사이의 일종의 약속 같은 것으로, 통신 화자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굳어진 표현’ 또는 ‘은어’에 가깝다. 이런 부분은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에서 (35)와 같은 ‘은어’는 잘 쓰이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얼굴 표정은 이모티콘의 초기 형태이고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서도 제일 빈도 높고 쓰이고 있는 표현 방법이다. 표정은 주로 눈, 코, 입, 얼굴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 (36)ㄱ. 헤씨~~^_____^ 했됐는데....
 ㄴ. 위의 말으 뽕땅쿨로 사준다는 말로 이해해두 대는가~~^^*
 ㄷ. 헉 @0@
 ㄹ. 스톱~ 지금 이게 3:1임두? _-_-;;
 ㅁ. 벽에라 사랑~ 빠디르 해봤됐습다..ㄷ.ㄷ

(36ㄱ)는 뜻밖의 좋은 소식을 접하고 헤벌쭙 웃는 표정이고, (36ㄴ)는 상대방에게 ‘뽕땅쿨로³²⁾’를 선물 받고 싶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다. (36ㄷ)는 황당하고 어이없어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표정이고 (36ㄹ)는 어리둥절 해하면서 식은 땀 흘리는 표정이다. (36ㅁ)는 벽에 이마가 부딪혔을 때 아파서 눈을 찌푸리는 표정이다. 한국 통신 언어에서는 행동을 표현한 이모티콘도 등장하였다.

(37)그림 이만 (--)(__)(--)꾸벽~ <한국>

32) 과일을 꼬치에 꿰어 사탕이나 꿀물을 바른 뒤 얼려서 먹는 간식.

(37)은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이모티콘의 사용은 문자적 표현 부분에 시각적 표현과 감정적 표현을 곁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에서 사용되는 표정 이모티콘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사용빈도가 높은 이모티콘

| 번호 | 이모티콘 | 예 | 해석 |
|----|---------------|----------------------------------|---------------|
| a | 一一;; | 근데 그건 꿈일뿐이구 一一;; | 난처해서 식은땀 흘리기 |
| b | ㄸ.ㄸ/ ㅠ.ㅠ | 완존 머리가 ㄸ.ㄸ 미침... / 집 가고싶다..ㅠㅠ | 눈물 흘리기 |
| c | --__--;.....; | 빙고느 넌저 --__--;.....; | 황당, 오리무중에 빠짐 |
| d | -, - | 크~ -, - 이게 10중은 더구나 아니구 | 한 줄 코피 |
| g | =口= | 집갈 차비 나오게슬...=口= | 입관련 묘사 |
| h | >_<; | 군게 아픏디다..>_<; | 쪽팔리기도 하고 아플때. |
| i | ##\$\$ | 아!!!!열난다...!!@@##\$\$ | 눈이 멀다 |
| j | ^^;; | 어^^;; 미안^ | 당황할 때 |

이모티콘 이외에 통신 언어의 독특한 표기방법으로 난해어(難解語)³³⁾를 들 수 있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도 (38)과 같은 난해어가 사용된다.

(38)ㄱ. 꿈★은 이루어진다♫Fighting ! 난그대의연예인

ㄴ. ★뚜뚜가죽 항상 행복하길 바래요★빠쌍^^^^^^☆"뚜뚜아빠☆"♡"☆

33) 일부 10대 네티즌이 중심이 되어 알파벳·일본문자·특수문자·한글자모 등을 혼합해 의사를 표현하는 컴퓨터 통신상의 언어를 가리키는바 학계에서는 '외계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뚜뚜엄마☆"[ㅎㅇ♡로ㅇ]"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38)과 같은 난해어는 제목이나 아이디어를 작성할 때 많이 쓰이고 구체적 대화나 게시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복잡한 정도도 한국 통신 언어에 비해 훨씬 덜하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난해어에 대한 언급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 (39)ㄱ. ㉠㉠남별님㉡는㉢㉢렝퀘글쓰능高☆로㉣㉣뽀게생각안훼 <한국>
(나 별님이 는 이렇게 글 쓰는 것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 ㄴ. 얼(마)(나).., 죠응, 쥘품드를"㉤쥬록(하)(ㅈ)I(마) ㉥ㅋ <한국>
(얼마나 좋은 작품들을 이젠 욕하지마!오케이??)

(39)는 신희삼(2004)에서 제시한 예인데 재미에 치우친 것으로 보고, 난해어를 기존 언어 상식의 파괴로 시작하여, 기호를 원용한 이모티콘, 더 나아가 특수 문자와 기호, 한자, 영어 등을 조합한 것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문장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 (40) ⇒ 니
- ⇒ 이
- ⇒ 재
- ⇒ 한
- ⇒ 말
- ⇒ 으
- ⇒ 믿
- ⇒ 으
- ⇒ 든
- ⇒ 바
- ⇒ 보
- ⇒ 지

(40)은 ‘니 이제 한 말으 믿으믄 바보지(너 방금 한 말을 믿으면 바보지)’라는 문장을 음절을 단위로 행을 바꾸어 나열하여 표기하였다. 이런 표기는 읽을 때 심한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주의력을 끄는 효과를 얻는다.

(41)이젠 술이 싫오~
이젠 위도 버렸으~
간으 버리기 전에 떼야쥐~

(31)은 ‘술 때문에 위를 버려버려서 간까지 버리기 전에 술을 떼겠다!’는 문장을 3행시처럼 표기하였다.

(42)조심조심 살금살금..들어와서...
...
...
...
디비 샅소~~~~~!!!!!!!!!!!!!!!!!!!!!!!!!!!!

(42)는 조용한 장소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어 사람을 깜작 놀라게 함을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43)만약!!!
뽕땅쿨로= 웨야꾸+차판+조리퐁+구운고구마³⁴⁾
이렁타구 말만 내리믄!!!
내 또 막 선심쓰게꾸마~

34) ‘뽕땅쿨로’는 작은 열매를 꼬지에 꽂은 후 설탕물을 바르고 얼려서 만든 음식이고, ‘웨야꾸’는 연골(軟骨)을 꼬지에 썬 다음 불에 구워먹는 음식이며, ‘차판’은 계란을 찻잎과 함께 삶은 음식이다.

(43)에서 ‘뽕땅쿨로= 웨야꾸+차탄+조리퐁+구운고구마’는 뽕땅쿨로를 사주라는 말의 뜻이 뽕땅쿨로를 사는 것 이외에도 웨야꾸, 차탄, 조리퐁, 구운 고구마를 함께 산다는 뜻을 포함함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였다.

(44)이동지누 허락두 없이 어째서 자꾸 꽃밭에라 발으 들어 놓을까 하는가~~

홍팔짱꼬아~~35)

다시 그리무 빠관한다이

(44)는 마지막 두 행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 경고성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남자가 여자들만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끼이는 것을 ‘꽃밭에 들어서다’라고 표현하였다. 아래 두 행에서는 그러지 말 것을 충고함과 아울러 계속 그런다면 ‘빠관(벌금)’한다고 경고하였는데 붉은 색으로 표기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2.3. 문장 부호에 의한 표기

문장 부호란 문장의 각 부분 사이에 표시하여 논리적 관계를 명시하거나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표기법의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부호를 말한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국어의 문장 부호는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수효는 19개이다(강희숙 2003: 195).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 문장부호는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최윤갑·전학석(1994)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과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 문장부호의 종류와 이름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다음의 <표 4>로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 문장 부호의 수효는 17개다.

35) 글자색을 빨간 색으로 표기 하였음.

<표 4> 한국과 중국 조선족 한국어의 문장 부호의 차이점

| 문장부호의 종류 | 문장부호의 이름 | |
|----------|----------|-------------|
| | 한국 | 중국 |
| . | 은점 | 점 |
| : | 쌍점 | 두점 |
| , | 반점 | 반점 |
| ; | × | 반두점 |
| ? | 물음표 | 의문표 |
| ! | 느낌표 | 감탄표 |
| - | 붙임표 | 이음표 |
| — | 줄표 | 폴이표 |
| | 줄임표 | 줄임표(...)36) |
| << >> | × | 인용표 |
| < > | × | 거듭인용표 |
| “ ” | 큰땅므표× | × |
| ” | 작은따음표× | × |
| 『』 | 겹낫표 | × |
| 「」 | 낫표 | × |
| () | 소괄호 | 반달괄호 |
| [] | 대괄호 | 꺾쇠괄호 |
| { } | 중괄호 | × |
| ~ | 물결표 | 물결표 |
| · | 가운데점 | × |
| / | 빗금 | × |

문장부호는 글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장 부호는 문장의 뜻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통신 언어에서 문장 부호는 일종의 수사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36)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에서 줄임표는 점 세 개로 표기한다.

(45)ㄱ. 병아리? ...님은--;;;(아이디가 '병아리'인 님은?)

ㄴ. 아~~~혈압이~~!!!제발 좀 알려주지~~

(아, 혈압이 올라간다. 제발 좀 알려줘)

ㄷ. ㅇ ㅏ ㅇ ㅣ ㅈ ㅏ 갯드렁--- ㅋㅋ ~(안 잘 꺼야)

(45)는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문장부호가 기존의 문장부호 맞춤법에 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된 예이다. (45ㄱ)에서 줄임표 '.....'는 '....'와 '..'의 형태로 표기되어 있고 휴지를 나타낸다. (45ㄴ)는 물결표 '~'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또는 세 번씩 사용하여 소리의 여운을 나타냈다. (45ㄷ)는 드리냄표 '---'을 이용하여 소리의 여운을 나타냈다.

그러면 아래 한국에서 제정한 19 개의 문장부호가 중국 통신 언어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온점은 문장의 끝맺음이나 생략의 의미를 나타낸다. 인터넷의 흐름 속에서 사용되는 통신 언어는 온점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물음표는 의문 또는 반어법의 끝에 붙이는 것이다.

(46)ㄱ. 보장.....우리 동생 남친 어떠냐???

(우리 동생의 남자 친구가 괜찮은지 한 번 보자)

ㄴ. ㅎㅎ엄마ㅏ합다???????(겁에 질려서 엄마를 불러요)

(46)은 물음표가 반복 사용된 예이다. (46ㄱ)는 여동생의 남자 친구에 대한 궁금증을 강조하였다. (46ㄴ)는 반어법의 끝에 물음표 여섯 개를 연이어 사용하여 상대방을 귀여워하는 감정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물음표가 반복 사용되어 강조의 뜻을 표현한다.

느낌표는 느낌을 나타내거나, 부름과 대답할 때 쓰이며, 명령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통신 언어에서 느낌표도 물음표와 마찬가지로 반복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높다.

(47)ㄱ. 야 위 관동뽕치고있네!!!

(야, 위에 있는 아이디가 '관동'인 분이 허풍떨고 있어)

ㄴ. 지송함더. 꾸벅! πππππ(죄송합니다)

ㄷ. 언니 셋!(언니, 이것은 비밀이야)

(47ㄱ)는 아이디가 '관동'인 통신 화자가 사실보다 부풀려 말함을 강조하였고, (47ㄴ)는 느낌표를 사용하여 허리를 굽히는 행동을 더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47ㄷ)는 느낌표를 사용하여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강조하였다.

쉽표는 나란히 놓인 낱말을 가르거나, 구 또는 절을 갈라놓았을 때, 또는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다음에 느낌표 대신 쓰인다. 그리고 도치된 말 다음에도 쓰이고 말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이는 경우와 부사어나 부사어가 바로 그 다음 말을 꾸미지 않고 건너 뛰어 꾸미는 경우에도 쓰인다. 쉽표는 통신 언어에서 (48)과 같이 사용된다.

(48)ㄱ. 그, 러야(그래?)

ㄴ. 나는 태풍 봤으무 좋겠는데,,, (나는 영화 <태풍>을 보고 싶은데)

(48ㄱ)에서 쉽표는 이탈적인 위치에 표기되어 강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48ㄴ)는 줄임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통신 언어에서 쉽표를 반복 사용하여 줄임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쉽표에 대해 언급하였다.

(49)오닐,,,남친이랑, 만났어? <한국>

(49)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로서 통신 언어에서 문장부호를 바르게 쓰는 일은 상당히 드물며 기존의 문장부호가 아닌 부호들도 함께 사용이 된다고 지적하

였다.

빗금은 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 사이에 쓰거나 분수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한다.

(50)ㄱ. 구기 구기잇움다/(거기, 바로 거기에 있어요)

ㄴ. //좋아박수(좋아요, 자, 박수를 보냅시다)

통신 언어에서는 (50)에서와 같이 놀라움이나 강조를 나타낸다.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중괄호와 대괄호는 통신 언어에서 적게 쓰인다. 소괄호는 자세히 설명할 때와 심리적 내용을 표현할 때에 쓰인다. 소괄호는 통신 언어에서 기존 언어와 같은 작용으로 사용된다.

(51)ㄱ. 짜리(달력)에 나오는 그림인가 했습다^^

ㄴ. 글구아이디도 넘 멋있습다(나도 멋진아이디로 바꿔야할텐데...)

(그리고 아이디도 너무 멋있어요. 저도 멋진 아이디로 바꿔야겠는데)

(51ㄱ)는 달력의 중국식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소괄호에 달력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51ㄴ)는 심리적 내용을 소괄호 속에 담고 있다.

줄표는 통신 언어에서 거의 안 쓰이고 있다. 붙임표는 여기와 접사 사이에나, 복합어의 성분을 보일 때 많이 사용된다. 통신 언어에서 이러한 쓰임을 찾아 볼 수 있다.

(52)ㄱ. 무슨-ㄷㄷ 싱야(무슨 뜻이야?)

ㄴ. 아-아임다(아니예요)

(52ㄱ)는 ‘무슨 뜻이야’는 말을 ‘무슨’의 뒤에 줄표를 사용하여 소리를 길게 냈음을 표현하였다. (52ㄴ)는 감탄사 ‘아’의 뒤에 줄표를 사용하여 휴지를 나타냈다.

물결표는 ‘내지’라는 뜻에 쓰이거나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 통신 언어에서 물결표는 소리의 여운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53)ㄱ. 우야~ 내 지금 불만이 따닥따닥 함다(나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 나. 아오~토하는분들 진정합소~
- (저의 말이 역겨워서 토하려는 분들 진정하세요)

(53)에서 보다시피 느낌을 표현하는 독립어 ‘우야’와 ‘아오’의 뒤에 물결표를 사용하여 소리를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거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데 통신 언어에서는 휴지를 나타내는 작용도 한다. 통신 언어에서 빈도 높게 사용하는 문장 부호이다.

- (54)ㄱ. 오...나..(그래, 좋아)
- 나. 음마.....나드-(어머, 나도)

(54)는 줄임표를 구성한 여섯 개 점을 통신 언어에서 임의의 개수로 정하여 사용한 예이다.

그러면 아래 <표 5>로 문장 부호가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의 쓰임을 정리해 보겠다.

<표 5> 문장 부호 체계 및 통신상의 쓰임

| 구분 | 명칭 | 부호 | 통신상에서의 쓰임 |
|-----|------|----|-----------------------|
| 마침표 | 온점 | . | — |
| | 물음표 | ? | 쟁천인데 그기누?? |
| | 느낌표 | ! | 우린 닭살커플~ >o<;;; 렉!!!! |
| 쉼표 | 반점 | , | 넝, |
| | 가운뎃점 | · | — |
| | 쌍점 | : | — |

| | | | |
|---------------|-------|--------|--|
| | 빗금 | / | 공개창 바라// |
| 따옴표 | 큰따옴표 | “ ” | — |
| | 작은따옴표 | ‘ ’ | — |
| 묶음표 | 소괄호 | () | 럽케이션(location)/므지개다리 밑에 *좁 싸지 말 지~~~~~진달래구름(2집)이딴나?? |
| | 중괄호 | { } | — |
| | 대괄호 | [] | — |
| 이음표 | 줄표 | — | — |
| | 붙임표 | - | 까-! 조앗쓰!!!!!!!!!!!!!! >o< / |
| | 물결표 | ~ | 텅 ~ 텅~ 텅~ 므슨 소릴까요옹 ~ / 여러분들 꼬~옥 건강 에 주의하세요!! / 없~~맞습니다맞고요 |
| 드러 냄표 | 드러냄표 | --- | 귀찮다를 중국말로 번역하면-----耳饞? |
| 안 드러냄 표 | 숨김표 | xx, 00 | — |
| | 빠짐표 | □ | — |
| | 줄임표 | | 이걸보구 누가 광고를 가져가 붙인젠가 했지 - -; 억울.. |

이 외에도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가 많이 쓰인다. ‘<>’는 시각적인 효과를 필요로 할 때 많이 쓰인다. ‘<’이나 ‘>’ 중 하나만 사용하거나 하나를 반복사용하며 두 개가 맞물려 사용되지 않는다.

(55ㄱ. 믿기지 안습닷>(믿어지지 않아요)

ㄴ. 제 나르 아우?>??(당신이 저를 알아요?)

ㄷ. 장미왔습당>>>>>> >>>>헤헤헤헤헤~

(아이디가 ‘장미’인 분이 입장했어요)

(55)에서 보다시피 강조나 놀라움의 효과를 표현할 때 많이 쓰인다. (55ㄱ)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임을 표현하였고, (55ㄴ)는 상대방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55ㄷ)는 ‘<>’를 반복 사용하여 소리의 강도를 표현하였다.

가운뎃점, 쌍점은 통신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쌍반점(;이 자주

사용된다. 쌍반점(;)은 동일한 종류의 때를 갈라놓아 잠깐 멈춤을 나타내는데 쉽표보다 갈라 때는 힘이 세다. 쌍반점은 대등절의 앞절과 뒷절 사이에 쓰이기도 한다.³⁷⁾

(56)ㄱ. 눈통;(주먹으로 눈을 때리다)

ㄴ. 싫은 땡;(싫은 데)

ㄷ. ㄷ ㄷ 그런아하그 노라즈느라그;;(때때³⁸⁾, 그런 애와 놀아주나?)

ㄹ. 그러ㅏㄱ우리;한판하라가요(그럼 우리 한번 싸워볼까요?)

(56)에서 보다시피 통신 언어에서 쌍반점은 격한 기분을 나타낼 때 쓰였다. 특히 (56ㄹ)에서 ‘우리’ 뒤에 쌍반점을 사용하여 어감을 강조하였다.

통신 언어에서 문장부호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57)ㄱ. 악수!.....(서로 의견이 맞을 때 하는 악수를 가리킨다.)

ㄴ. 그니가 내가 말해봤단 소리두 꺼내케지말라오;!

(그러니까 나랑 얘기했던 말도 꺼내지 마)

ㄷ. ~!?!~?!~?!? 엇즈 ㅁ 나가칭런제못게더마이 휴 아쌍

(벨런타인데이 못 쇠더니 얘기 맛이 짚구나)

ㄹ. 안돼~~~~!!!!!! ㅏ.-

ㅁ. 그래 짐 왕바..? 집..? 아이무 핵교...?

(그럼 지금 pc방이야? 집이야? 아니면 학교야?)

ㅂ. 네//

(57)은 함께 연이어 사용될 수 없는 문장 부호들을 사용한 예들이다. (57ㄱ)는 ‘악수’에 느낌표를 찍어 반가운 감정을 표현하였고 뒤에 줄임표를 써서 반가울 때 하는 여러 가지 인사말들을 연상시킨다. (57ㄴ)는 휴지로 소리의 끊김을 나타내면

37) 전재호·박태권, 『국어표현문법』, (반도출판사, 1995), 193쪽,

38) 중국 조선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바보’의 속된 표현이다.

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느낌표를 추가하였다. (57ㄷ)는 느낌표와 물음표를 짝을 지어 사용하여 놀라움과 어이없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57ㄹ)는 물결표를 반복 사용하여 긴 소리를 나타냈고 느낌표를 반복 사용하여 강조하는 효과를 얻었다. (57ㅁ)는 온점 하나로 작은 휴지를 나타내고 점 두 개로 좀 긴 휴지, 점 세 개로 더 긴 휴지를 나타냈고 그 뒤에 각각 물음표를 달아서 선택적인 물음을 표현하였다. (57ㄴ)는 빗금과 온점을 조합하여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3.3. 음운론적 분석

통신 언어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음운론적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를 탈락, 축약, 첨가, 동화, 경음화, 두음법칙으로 나누어 음운론적인 고찰을 진행한다.

3.3.1. 탈락

탈락 현상은 두 형태소의 두 음운이 연결될 때, 두 음운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탈락 현상은 언어 경제적 행위의 결과이다(이석주·이주행 1994: 65). 통신 언어에서 음운 탈락 현상은 경제성의 효과와 더불어 기존의 형태와 표기를 다르게 하고 구두어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음절수가 변하지 않은 탈락 현상과 음절수가 변하는 탈락 현상으로 나누어서 보겠다.

먼저, 일정한 음이 탈락되어도 전체 음절수는 변하지 않는 음운 탈락 현상이 있다.

(58)ㄱ. 안녕?

ㄴ. 안녕함다

ㄷ. 안녕함다

- (59)ㄱ. /annjəŋ/ ‘안녕’ → [anjəŋ]
 ㄴ. /annjəŋ/ ‘안녕’ → [anjə]
 ㄷ. /annjəŋ/ ‘안녕’ → [anjə]

(58)은 ‘안녕’이란 단어가 통신 언어에서 음절말 탈락을 겪은 모습을 보여준다. (59ㄱ)는 첫 음절의 말음 /n/이 탈락되었고, (59ㄴ)는 두 번째 음절의 말음 /ŋ/이 탈락된 예이고, (59ㄷ)는 앞뒤 음절 음절말음 /n/와 /ŋ/이 모두 탈락된 예이다. (58)과 같은 음운 탈락 현상은 구두어에 가까운 발화를 표기로 옮긴 예로서 친교성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60)ㄱ. 아하, 우리 링링이 너무 또또하오
 ㄴ. 내 니까리군이 말을또갈게말을할게
 ㄷ. 내 조니?

- (61)ㄱ. /t'okt'ok/ ‘똑똑-’ → [t'ot'o]
 ㄴ. /t'okkath/ ‘똑갈-’ → [t'ogat]
 ㄷ. /čohh+ni/ ‘ 좋니’ → [čoni]

(61ㄱ-ㄴ)에서는 음절말 자음 /k/가 탈락되었다. /k/의 탈락으로 하여 혀가 짧은 소리로 변하여 말 잘 못하는 어린이의 발음을 연상하게 해주어 귀염성을 더해준다. (61ㄷ)에서는 ‘ 좋니’의 발음인 ‘ 존니’의 첫 음절 말음 자음 [n̥]이 탈락되어 ‘조니’로 실현되었다. 음운 탈락 현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내가 좋니?’라고 물어보면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62)ㄱ. 그거두물루구 휴
 ㄴ. ㄱ | 짐 제 정시 아이재..
 ㄷ. ㅈ | ㅈ | 버거레라

- (63)ㄱ. /kikəs+to/ ‘그것도’ → [kigət'u]
 ㄴ. /čəŋsin/ ‘정신’ → [čəŋʃi]
 ㄷ. /čiči+pəl/ ‘지지벌-’ → [jʃibəl]

(62)도 음절말 자음이 탈락되는 현상으로서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 방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63ㄱ)은 ‘그것’에서 두 번째 음절말 자음 /s/가 탈락되었고, (63ㄴ)은 ‘정신’의 두 번째 음절말 자음 /n/가 탈락되었다. (63ㄷ)은 ‘지지벌거리-’의 세 번째 음절말 자음 /l/이 탈락되었다.

- (64)ㄱ. 아이 나느 시계바늘이 뱅뱅 돌아가는거 이런거~~
 ㄴ. 근데 이 화제에서 내 녀 쇼르 해설
 ㄷ. 울 둘이 간까?

- (65)ㄱ. /niŋ/ ‘-는’ → [ni]
 ㄴ. /i/ ‘-을’ → [i]
 ㄷ. /ka+i/ ‘갈-’ → [ka]

(64)는 조사의 음절말 자음 탈락 현상이다. 이 현상은 중국 연변 지역의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이다.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구두어에서 조사 ‘-는’, ‘-을/-를’은 각각 음절말 자음 /n/와 /l/이 탈락되면서 실현된다. 이러한 음운 탈락 현상은 통신 환경에서 유대성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66)ㄱ. 미오
 ㄴ. 가르 바까라 해라
 ㄷ. 훈춘분 애기해요
 ㄹ. 니눔 어제 내 개속 변태마 만나눔가 하닝?

- (67)ㄱ. /mi+wə/ ‘미워’ → [mio]
 ㄴ. /pak'wə/ ‘바뀌’ → [pak'a]

- ㄷ. /jɛki/ ‘애기’ → [ɛgi]
 ㄹ. /kjesok/ ‘계속’ → [kɛsok]

(66ㄱ-ㄴ)는 중간음인 활음 /w/가 탈락된 예이고, (66ㄷ-ㄹ)는 활음 /j/가 탈락된 예이다. (67ㄱ)는 활음 /w/가 탈락 되고나서 [o]로 되었고, (67ㄴ)의 /wə/는 [ə]로 된 다음 다시 모음하강을 거쳐 [a]로 실현된다. (67ㄷ)의 /je/는 활음 /j/가 탈락되어 [ɛ]가 되었고, (67ㄹ)의 /je/는 활음 /j/가 탈락되어 [e]로 된 후, 다시 위치 이동하여 [ɛ]로 되었다. (66)의 예들은 통신 언어 환경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여 경제성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활음에 의한 탈락 현상이 언급되었다.

- (68)ㄱ. 모하고(뭐하고) <한국>
 ㄴ. 으뿐(예뿐) <한국>

(68)은 이승후(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68)의 현상을 가상공간에서도 경제성 때문에 컴퓨터 자판의 이용 횟수의 문제가 생겨난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음운이 탈락되면서 기존의 음절수가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음운현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 (69)ㄱ. 멧저
 ㄴ. 곱운 얹타 보내 즈갯소하하
 ㄷ. 갈
 ㄹ. 눅같이잇니?

- (70)ㄱ. /mesinčə/ ‘메신저’ → [mesčə]
 ㄴ. /apatʰa/ ‘아바타’ → [aptʰa]
 ㄷ. /ka+la/ ‘가라’ → [kal]
 ㄹ. /nuku/ ‘누구’ → [nuk]

(69)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앞 음절의 말음으로 되고 기타 부분이 탈락되는 예로서 중국 조선족 통신 환경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70ㄱ)는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 /s/가, (70ㄴ)는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 /p/가, (70ㄷ)는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 /l/이, (70ㄹ)는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 /k/가 각각 첫 음절의 말음이 되고 기타 음은 탈락되었다.

(71)ㄱ. 첼 이런 모임 참석했는데, 참 좋은 모임이라 생각했어요.

ㄴ. 존하루

ㄷ. 내 짚 로그인 안 한 상태

(72)ㄱ. /č^həjɪm/ ‘처음’ → [č^həɪm]

ㄴ. /čoh+iɪn/ ‘좋은’ → [čon]

ㄷ. /čikim/ ‘지금’ → [jim]

/lokɪin/ ‘로그인’ → [rogin]

(71)은 마지막 음절에서 말음 자음만 남기고 기타 부분이 탈락된 예로서 중국 조선족의 일반 언어 환경과 통신 언어 환경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72ㄱ-ㄴ)는 모음 /i/가 탈락되었고, (72ㄷ)의 ‘지금’에서는 /ki/가 탈락되고 ‘로그인’에서는 /i/가 탈락되었다. (71)과 같은 음운 탈락 현상 역시 경제적 효과와 구두어를 살려 친교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음운 탈락 현상이 언급되었다.

(73)ㄱ. 탤(태양) <한국>

ㄴ. 앤(에인) <한국>

(73ㄱ)는 박철주(2006)에서 제시한 예이고, (73ㄴ)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이다. 박철주(2006)은 통신 언어에서 명사의 생성에 모음탈락과 자음탈락 현상이

이용된다고 분석하였다.

(74)ㄱ. 알당

ㄴ. 극쿵낙..

(75)ㄱ. /al+as'+ta/ '알았다' → [aldan]

ㄴ. /kiləh+kuna/ '그렇구나'→ [kikkʰiɲnak]

(74)는 가운데 음절 자체가 탈락되는 경우로서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75ㄱ)에서는 두 번째 음절 '았'이 탈락되었고, (75ㄴ)의 '그렇구나'에서는 두 번째 음절 '렇'의 발음 /h/가 세 번째 음절의 초성 /k/를 [kʰ]로 유기음화시킨 뒤에 전부 탈락된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음절 자체가 탈락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76)ㄱ. 갑(동갑) <한국>

ㄴ. 빠(오빠) <한국>

(77)ㄱ. 존말(존대말) <한국>

ㄴ. 아디(아이디) <한국·중국>

(78)ㄱ. 유부(유부남) <한국>

ㄴ. 컴(컴퓨터) <한국·중국>

(76-78)은 박철주(2006)에서 제시한 예이다. (76)은 앞 음절에 의한 탈락이고, (77)는 가운데 음절에 의한 탈락이며, (78)은 뒤 음절에 의한 탈락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기존의 의미 체계를 염두에 둔 채 일부 음절을 탈락하여 사용한 약칭이 기본형태보다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중국 조선족 통신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탈락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77ㄴ)의 '아디'나 (78ㄴ)의 '컴'과 같은 개별 어휘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있는 음절 탈락 현상은 아니다.

3.3.2. 축약

연속하는 두 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으로 축소하는 현상을 축약(縮約, con-
-traction)이라 한다. 이 현상은 두 음을 발음할 때 드는 노력으로 사용된다(이석
주·이주행 1994: 65).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통신 언어에서 축약현상은 사용빈
도가 높은 음운현상의 하나이다.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도 예외가 아니
다.

먼저, 일반적인 언어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음운 축약 현상이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79)ㄱ. 왜그러쑤?

ㄴ. 그렇탈니다

ㄷ. 그렇크낭

(80)ㄱ. /kiɭəh+čjo/ ‘그렇쑤’ → [kiɾəčhjo]

ㄴ. /kiɭəh+tə/ ‘그렇다’ → [kiɾəthə]

ㄷ. /kiɭəh+kuna/ ‘그렇구나’ → [kiɾəhkhuna]

(79)는 자음 사이에서 일어난 축약 현상이다. (80ㄱ)는 자음 /h/와 /č/가 유기음화
를 거쳐 [č^h]로 되었고, (80ㄴ)는 자음 /h/와 /t/가 음운 축약을 거쳐 [t^h]로 되었으
며, (80ㄷ)는 자음 /h/와 /k/가 음운 축약을 거쳐 /k^h/가 되었다. 이러한 음운 현상
은 통신 언어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음 축약 현상이 언급되었다.

(81)ㄱ. 글꾼요 <한국>

ㄴ. 어켄(어떻게) <한국>

(81ㄱ)는 전병용(2002)에서 말을 간략히 줄여서 사용하는 예이고, (81ㄴ)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렇군요’의 두 번째 음절의 말 자음 /h/와 세 번째 음절의 두음 /k/가 자음 축약현상을 거쳐 [kʰ]로 되었다.

(82)ㄱ. 카! 지팽이르 끊에뿌린다 어째.개당기게설

ㄴ. 오라재무 반오십인데 우리느

ㄷ. 개쌌하다 내 없을썰 날 쌌개?

(83)ㄱ. /ki+ə/ ‘기어-’ → [ke]

ㄴ. /ola+či+anh+i+mjən/ ‘오라지 않으면’ → [oračǵmu]

ㄷ. /sai+lo/ ‘사이로’ → [sɛl]

(82)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음 축약 현상이다. (83ㄱ)는 모음 /ə/와 /i/가 축약을 겪어 [e]로 된 예이고, (83ㄴ-ㄷ)는 모음 /a/와 /i/가 [ɛ]로 축약된 예이다.

다음으로, 중국 통신 언어에는 축약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환경에서 축약 현상을 겪지 않는 특이한 현상도 존재하였다. 이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의한 것으로 통신 언어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84)ㄱ. 야 니엇재그르 | 답다바게구니 니누깡가

ㄴ. 올으므 올다는게 아니라

ㄷ. 이렇게 따따산 말들어보기누 오늘이 처음입다~

(85)ㄱ. /taptap+hə+ke/ ‘답답하게’ → [tapdabage]

ㄴ. /olh+ta/ ‘올다’ → [olda]

ㄷ. /t'at'is+hə+n/ ‘따뜻한’ → [t'at'aʃan]

(85ㄱ)의 ‘답답하-’에서 둘째 음절의 말음 /p/와 뒤에 오는 음절의 두음 /h/는 축약을 일으켜 [pʰ]가 되어야 하는 음운환경이다. 하지만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85ㄴ)에서도 ‘옳다’의 첫 음절말음 /ɸ/와 두 번째 음절의 두음 /t/는 축약 현상이 일어날 음운환경이지만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85ㄷ)에서는 두 번째 음절의 말음 /s/와 뒤 음절의 두음 /h/가 음운 축약을 겪지 않고 /h/가 탈락되었다. (84)의 현상들은 자음 /h/가 유기음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먼저 탈락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통신 언어에는 축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환경을 염두에 둔 특이한 현상이 있다.

(86)ㄱ. 대화 붓합시다

ㄴ. 저..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말식혀주지 마삼~~

(86ㄱ)에서는 ‘붓합’은 첫 음절의 말음 음소 [t]와 둘째 음절의 초성 /h/가 음운 축약을 거쳐 [tʰ]로 되는 음운 환경을 염두에 둔 현상이다. (86ㄴ)은 ‘식혀-’에서 첫 음절의 말음 /k/와 둘째 음절의 초성 /h/가 음운 축약을 거쳐 [kʰ]로 되는 음운 환경을 염두에 둔 현상이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언급되었다.

(87)ㄱ. 쌍꺀홀(쌍꺼풀) <한국>

ㄴ. 택홀(태클) <한국>

(87)은 박철주(2006)에서 제시했던 예인데 (87)의 현상을 역 자음 축약으로서 자음 축약이 일어날 수 없는 일반 어휘를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음절이 되도록 자음을 재구성하는 특이함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3.3.3. 첨가

첨가는 기저에 없던 음이 첨가되는 현상으로 위치에 따라 어두음 첨가

(prothesis), 어중음 첨가(anaptyxis)와 말음 첨가(epithesis)가 있다. 통신 언어가 표현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 첨가 현상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로써 나타낼 수 없는 억양,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음운을 첨가시켜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이경민 2002: 28-29).

먼저,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환경에서 음절말 자음 첨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88)ㄱ. 떨아랏어_ㅁ

ㄴ. 휴 죽겠_ㅁ다얏

ㄷ. ㅋ ㅋ...내눅이_ㅁ꺄~

(89)ㄱ. 저넉에친다구하_ㅁ숑

ㄴ. 내 열매 신나_ㅁ꺄닐

ㄷ. 말이 안_ㅁ통하나 봄달

(88)은 음절말에 [m̥]가, (89)는 음절 말에 [ŋ̥]이 첨가되었다. 자음 /m/와 /ŋ/은 공명음에서 비자음이다. 비음은 여성의 애교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이 두 음절말 자음의 첨가현상은 사용자가 애교나 귀여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음절말 자음 [m̥]와 [ŋ̥]이 첨가되는 현상이 언급되었다.

(90)ㄱ. 아참! 그리고 님은 남을 비방할 만큼 그리 공부 잘하나_ㅁ용<한국>

ㄴ. 올해는 왜 안하나_ㅁ용?? <한국>

(90)은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90)과 같은 현상을 이용자들 사이의 관습적인 표현으로 보고 음절말 자음 ‘ㅁ’이나 ‘ㅇ’으로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91)ㄱ. 이그앗~~떨그났

ㄴ. 빨 가 숙제해랏

ㄷ. 가집솟

(92)ㄱ. 복싶슨단..

ㄴ. 내짐옷을 기부이 아임단

ㄷ. 좋겟승단

(91)은 음절말에 [s̥]가 첨가된 예이고, (92)는 음절말에 [k̥]가 첨가된 예이다. 자음 /s/는 음절말에서 음소 [t]로 나타난다. 자음 /s/와 /k/는 장애음에서도 파열음이다. 파열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구강 내에서 폐쇄되었다가 구강의 중앙에서 파열된다. 사용자는 음절말에 이 두 자음을 첨가 하여 강하면서도 짧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음절말 자음 [s̥]와 [k̥]의 삽입현상이 언급되고 있다.

(93)ㄱ. 감기에 다들 안걸리도록 합시닷! <한국>

ㄴ. 미소야 나 간단(간다) <한국>

(93ㄱ)는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이고, (93ㄴ)는 전병용(2002)에서 제시한 예이다. 이경민(2002)에서는 (93ㄱ)와 같이 [s̥]가 첨가되어 발음의 끝을 닫는 현상을 자신의 발화에 절제가 있게 하려는 이용자들의 심리로 분석하였다. 전병용(2002)에서는 음절말음 [k̥]는 [p̥]나 [s̥]보다는 덜하지만 절도와 강조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음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부 음절말 자음 첨가 현상이 논의되었다.

(94)ㄱ.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가 싶은데엎..<한국>

ㄴ. 언제나 잘 챙겨주시고 넘흐 감사해ㅎ^__^* <한국>

ㄷ. 짐저 설이여ㅎ~^^*얼라 기뽀~♡ <한국>

(94ㄱ-ㄴ)는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이고, (94ㄷ)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이다. 이경민(2002)에서는 음절말에 [p̚]와 [t̚]를 삽입하여 강조나 강제성을 띠게 하거나 원래 표현보다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음절말에 [p̚]와 [t̚], [k̚]를 삽입하는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95)ㄱ. 케이 회원들 몽땅 텔구 가깁술....ㅋㅋ

ㄴ. ㄱ 내 술치지말

ㄷ. ㅎㅎ 울거봉업바 쨌 거부달

(95)는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음절말에 자음 [l̚]이 첨가된 예이다. 음절말 자음 [l̚]은 유음에서 설측음으로 발음 할 때, 공기가 구강중앙부에서 폐쇄되어 구강의 양 측면으로 빠져나간다. 음절 말에 [l̚]을 첨가하여 말끝을 흐리는 효과와 장난기 어린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말하기 속스럽거나 난감한 말의 끝에 ‘ㄷ’을 많이 첨가한다. 한국 통신 언어에도 음절말 자음 [l̚]의 첨가현상이 존재하지만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6)없어설(없어서)

<한국>

(96)은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기존의 언어 변화가 추구하던 방식을 파괴하고 유희적인 성격을 가진 새로운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97)ㄱ. 저도 러브유님사진기를 갖추려고

ㄴ. 대두동무 이번휴가는 어떻게 보낼려는지,

ㄷ. 그거두물루구 휴

(98)ㄱ. /kačč^hu+l̚jəko/ ‘갖추려고’→ [kačč^hʌl̚jəko]

- ㄴ. /ponɛ+ljə/ ‘보내려’ → [ponɛʌljə]
- ㄷ. /moli+ko/ ‘모르고’ → [moʌʎugʌ]

(97)은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가 통신 언어에 반영된 현상으로 뒤 음절의 두음 /l/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언급되었다.

- (99)ㄱ. 수업을 할려구 그렇구나라구요 <한국>
- ㄴ. 아직 여름 끝날려면 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한국>

(99)는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99)의 현상을 ‘르’불규칙 용언³⁹⁾의 영향을 받은 유추적 평준화⁴⁰⁾의 예로 분석하였다.

- (100)ㄱ. 올바ㅏㅏㅏㅏㅏㅏㅏ
- ㄴ. 코물 ㅣ 막절절 짜ㅏㅏ..
- ㄷ. 내지금 로반이 나갓글래 지금 챗팅한다
- ㄹ. 낮두 한가지다 집에서 더 재밋다
- ㅁ. 미친색기

- (101)ㄱ. /op'a/ ‘오빠’ → [oppa]
- ㄴ. /k^ho+mul/ ‘코물’ → [k^hommul]
- ㄷ. /č^hɛt^hiŋ/ ‘채팅’ → [č^hɛsth^hiŋ]
- ㄹ. /na+to/ ‘나도’ → [nastu]
- ㅁ. /sɛk'i/ ‘새끼’ → [sɛkgi]

39) 예컨대, ‘르’불규칙 용언 ‘흐르다’는 어미 ‘-어서’와 결합할 때는 ‘홀러서’로 활용되며, 어미 ‘-고’와 연결될 때는 ‘흐르고’가 된다. 이처럼, ‘흐르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기본형 ‘흐르-’와 이형태 ‘홀르-’이 교체되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40) 유추적 평준화란 한 형태소의 교체형들의 수를 줄여 교체를 되도록 없애는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유추 변화에 대해서는 배주채(1995:164-170)참조.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서는 (100)과 같이 뒤 음절의 초성이 앞 음절의 말음에 복사되듯이 첨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음절 말에 뒤 음절 초성을 첨가하여 소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통신 언어에도 이러한 음운현상이 존재한다.

- (102)ㄱ. 옴빠(오빠) <한국>
- ㄴ. 커피(카페) <한국>

(102)는 박철주(2006)에서 제시했던 예인데 단순히 ‘ㅍ’의 음운 첨가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 (103)ㄱ. 집에 가보닌까 정말 신문에..... <한국>
- ㄴ. 학교에서 축구보면서 응원하고 열심히 자습하다가 끝나닌까...<한국>

(103)은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인데 한국 통신 언어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음절말 자음 첨가 현상이다. 이경민(2002)에서는 (103)의 현상이 어미 ‘-니까’에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어중음 첨가 현상에는 활음의 첨가가 있다.

- (104)ㄱ. 모습 기억했다가 서시장에서 만나게되면 함 불러봐야쥬...^^
- ㄴ. 가치잇쥬?
- ㄷ. 하루빨리 좋은인연 만나기 바라쥬ㅎ~...

- (105)ㄱ. /çi/ ‘-지’ → [čwi]
- ㄴ. /ni/ ‘-니’ → [nwi]
- ㄷ. /ta/ ‘-다’ → [twa]

(104)는 통신 언어 환경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으로서 문장의 끝 음절에 활음 [w]가 삽입된 예이다. 활음 [w]가 삽입되어 (105ㄱ-ㄴ)는 [wi]로 실현되고, (105ㄷ)는 [wa]로 실현되었다.

(106)ㄱ. ○ 뭉저리 가라

ㄴ. ㅎㅎ 듀스는 속에 무슨 걸리는게 있는 뭉지

(107)ㄱ. /məčəli/ ‘머저리’ → [mwəčəri]

ㄴ. /mɛ+či/ ‘매지’⁴¹⁾ → [mwɛʃi]

(106)은 첫 음절에 활음 [w]가 삽입된 예로서 일반 언어 환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활음 [w]가 첨가되어 불멘소리처럼 들리면서 귀염성을 더해주고 다소 애교스러운 느낌을 준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활음 첨가 현상이 논의되었다.

(108)ㄱ. 하다뉘(하다니) <한국>

ㄴ. 쉼리즈(시리즈) <한국>

(108)은 이승후(2002)에서 제시한 예로서 강하거나 단호한, 또는 귀엽거나 애교스러운 느낌과 같은 화자의 미묘한 태도를 전달하여 대화의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109)ㄱ. ○ 케 ㅋㅋ 알쑈

ㄴ. 완쑈 머리가 T.T 미침...

ㄷ. 울 거봉운니사머.. ㅋㅋ 인기 쫌이지머.. 해헛...

ㄹ. 런랏 할겨

(110)ㄱ. /al+as'+so/ ‘알앗소’ → [alʃ'ju]

41) 여기서 ‘매지’는 이 지역에서 ‘모양이지’의 표현이다.

| | |
|--------------|-------------------|
| ㄴ. /wančən/ | ‘완전’ → [wanjion] |
| ㄷ. /čuk+iči/ | ‘죽이지’ → [jjuɡjji] |
| ㄹ. /ljənlak/ | ‘런락’ → [ljənɾjak] |

(109)는 활음 [j]가 첨가된 예이다. (110ㄱ-ㄴ)는 활음 [j]가 첨가되기 전에 먼저 해당모음이 위치변화를 겪는다. (110ㄱ)에서 ‘알쑤’는 ‘알았소’가 ‘알쏘’로 되고 모음 /o/가 아래로 이동하여 [u]로 변동하여 ‘알쑤’로 된 뒤, 활음 [j]가 첨가되어 ‘알쑤’로 되었다. (110ㄴ)는 ‘완전’에서의 ‘전’의 모음 /ə/는 뒤로 이동하여 [o]로 변동한 다음 [j]가 첨가되어 ‘존’으로 되었다. (110ㄷ)에서 ‘죽-’은 활음 /j/가 첨가되어 [čju]로 실현된다. (110ㄹ)에서 ‘런락’의 ‘락’은 활음 /j/가 첨가되어 [ɾjak]으로 사용됨으로써 어감을 강조하고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국 통신 언어에서도 이러한 활음 첨가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 (111)ㄱ. 고장드 넘넘자쑤나그요.. <한국>
 ㄴ. 이글을 보시는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한국>
 ㄷ. 도대체 2학년 선생님들!! <한국>

(111)은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이다. 이경민(2002)에서는 음운을 변화시켜 다양하게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하고 이런 현상이 통신 대화에서 유행처럼 변진다고 하였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는 (111ㄴ-ㄷ)와 같이 활음 /j/가 /e/에 첨가되어 [je]로 나타나는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 통신 언어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었지만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음절 초 자음 첨가 현상이 있다.

- (112)ㄱ. god펜분들 봐주세요ㅎ^_^ <한국>
 ㄴ. 안녕하세요? <한국>

(112)는 전병용(2004)에서 제시된 예인데 (112)의 현상을 끝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경향으로 보았다.

3.3.4. 동화

두 분절음 사이에서 한 소리가 다른 한 소리의 영향을 받아 영향을 준 소리와 같거나 비슷하게 닮는 현상을 동화(同化, assimilation)라고 한다(이석주·이주행 1994: 57). 본 논문에서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방언 형태의 동화 현상과 동화 현상이 일어날 법한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통신 환경에서만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동화 현상을 살펴보겠다.

(113) 짚이 몰몰 나는 밥을 짚과 온도를 다시 되찾아서 처리하면

(114) /kim/ ‘김’ → [jim]

(115) 음운과정

/k/ → [č] / __ /i/

/č/ → [j] / __ /i/

(113)은 통신 언어 환경에서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의해 나타난 구개음화의 예이다. (115)의 음운 과정을 거쳐 자음 /k/가 모음 /i/에 의해 [j]로 ㄱ-구개음화를 겪는다.

(116) ㄱ. 취꼬랑대 영 으쓱한매~

ㄴ. 그미언니 나르 뜰굴래기 없슴다 예.ㅋㅋㅋ

ㄷ. 주새잇니글세

(117) ㄱ. /čekək/ ‘제격’ → [tek’adək]

ㄴ. /č’oč^h+il+neki/ ‘꽃을내기’⁴²⁾ → [t’olguΛΛgi]

ㄷ. /čuč^hɛk/ ‘주책’ → [čuɛ]

(116)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방언 형태가 통신 언어에 반영된 예이다. (116)의 예들은 한국에서 이미 완성된 구개음화 현상을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미처 겪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방언 형태이다.

(118)ㄱ. 프핫...이여자 잼다야...막 보자마자 반말이 슬슬 나오능게...

ㄴ. 잘까?

(119)ㄱ. /pan+mal/ ‘반말’ → [pammal]

ㄴ. /ča+l+k'a/ ‘잘까’ → [čakk'a]

(118)은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위치동화의 예이다. (119ㄱ)는 음절말 자음 /n/가 뒤 음절의 /m/에 의해 동화된 현상이고, (119ㄴ)는 음절말 자음 /l/이 뒤 음절의 /k/에 의해 동화되는 현상이다. 일상 언어와 통신 언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으로 구개음을 치경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

(120)ㄱ. 더두18

ㄴ. 또꼼있은게~ 코몰이 막 나오잼까~~

오늘 또꼼 다음주에 또꼼 ...

(121)ㄱ. /čə+to/ ‘저도’ → [tədu]

ㄴ. /čokim/ ‘조금’ → [t'ok'om]

(121ㄱ)는 구개치경음 /č/가 치경음 [t]로, (121ㄴ)는 구개치경음 /č/가 치경음 [t']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120)과 같은 현상을 통해 애교를 부리고 기존의 언어와

42) ‘쫓을내기’는 중국 조선족 연변 방언인데 ‘쫓아오기’의 뜻이다.

차별화하려고 애쓴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언급되었다.

- (122)ㄱ. 아잉~~~~ 말하고 나니까 뚝뚝럽다 <한국>
- ㄴ. 울딕(우리 집) tv 만나와염 <한국>
- ㄷ. 승준이 내 똥구얍(친구야)~~~~ <한국>

(122ㄱ)는 구현정(2002)에서 여성어의 사용으로 제시한 예이고, (122ㄴ-ㄷ)는 전병용(2004)에서 제시한 예이다. 여기서 ‘쑥스럽다’의 /s/와 /s/가 [t]로 나타났다. 전병용(2004)에서는 (122)의 현상을 역 구개음화 현상⁴³⁾으로 보았다. 그는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역 구개음화 현상은 의도적인 과격의 발음으로 변화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데서 유행되며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북한 열풍이 아직 구개음화 현상을 겪지 않은 평안도 방언을 흉내 내며 즐기는 면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3.3.5. 경음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경음화 현상이 많이 실현되고 있다. 이주행(2005)에서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10대와 20대의 어두경음화 현상의 실현양상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인 10대는 2%대, 20대는 3%대에서 실현되는데 반해 중국 조선족 10대는 20%대, 20대는 30%대에서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 (123)ㄱ. 곧 한번 몽쳐야 할뜻^^*
- ㄴ. 난니쨌따
- ㄷ. 어떠쫌까

43) 역 구개음화란 구개음화와는 반대로 원래의 구개음이 착각이나 의도적인 왜곡으로 비구개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 (124)ㄱ. /hal+t̥is/ ‘할 듯’ → [halt̥is]
 ㄴ. /čɛmi+is'+t̥a/ ‘재미있다’→ [čɛmt̥a]
 ㄷ. /s̥ipni/ ‘-습니’ → [s̥iŋ]

(123)의 예는 중국 조선족의 일반 언어 환경에서도 실현되는 경음화 현상이다. (124ㄱ)는 음절말 자음 ‘ㄹ’뒤에서 뒤 음절의 초성 ‘ㄷ’가 경음화 현상을 겪어 ‘ㄷ’로 실현된 예이다. (124ㄴ)는 음절말 자음 ‘ㅍ’ 뒤에 평음 ‘ㄷ’가 와서 ‘ㄷ’로 실현되었고, (124ㄷ)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음절초 자음이 경음화된 예이다.

- (125)ㄱ. 컷말 푸러라 ㅎ ㅎ 엇지라그 컷말하구 그래니?
 ㄴ. ㅈ | 셋ㄱ |
 ㄷ. 어링격 ㄱ ㅈ

- (126)ㄱ. /əč̥i/ ‘어찌’ → [əsj̥i]
 ㄴ. /s̥ɛk̥i/ ‘새끼’ → [sɛsg̥i]
 ㄷ. /kə̃s+k̥wa/ ‘-것과’ → [kə̃k̥ga]

(125)는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환경에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 환경을 이용하여 경음을 표시한 예이다. 폐쇄음 뒤에 평음 초성이 올 경우 그 평음은 경음으로 발음된다. 때문에 (126ㄱ-ㄴ)는 각각 경음 ‘ㅈ’와 ‘ㄱ’를 안 쓰고, 앞 음절에 음절말음 ‘ㅈ’를 삽입하여 ‘엇’과 ‘셋’으로, 뒤 음절의 초성을 ‘ㅈ’와 ‘ㄱ’로 하여 경음 ‘ㅈ’와 ‘ㄱ’가 실현될 수 있는 음운 환경을 만들었다. 중국 조선어에서 (126ㄷ)의 ‘것’은 ‘거(kə̃)’로 발음되고 조사 ‘과’는 ‘까’로 발음된다. 즉, ‘것과’는 ‘거까’로 발음된다. 통신 화자는 ‘까’의 경음 ‘ㄱ’를 직접 쓰지 않고, 앞 음절 ‘거’에 음절말음 ‘ㄱ’를 삽입하고 뒤 음절의 초성을 ‘ㄱ’ 대신 ‘ㄱ’를 사용하여 경음을 발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에서는 경음화 현상이 많이 이용된다.

(127)ㄱ. 쏟썩(숨썩)

<한국>

ㄴ. 저도 중학교2학년끝날썩에 산 것을 지썩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한국>

(127ㄱ)는 박철주(2006)에서 제시한 예이고, (127ㄴ)는 이경민(2002)에서 제시한 예이다. 박철주(2006)에서는 경음화에 의한 통신 언어 생성은 ‘ㄱ, ㄷ, ㅌ’에서만 일어나고 ‘ㅂ, 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이경민(2002)에서는 경음화 현상이 언어 발음이 강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경음화 현상이 심각한 기존의 언어에서 일탈하는 노력을 보이는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와 상반되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영어의 영향을 많이 입으면서 점점 경음을 적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야 할 음운 환경에서도 경음화 현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8)ㄱ. 령맨 잇으므 어느마이 아깁니

ㄴ. 그니가 내가 말해봤단 소리두 꺼내케지말라고,!

ㄷ. 미테다 령맨사발 각부레라

ㄹ. 너하구 어지던/

ㅁ. 일직일직 집이나 들어가서 밥이랑 머경렁

ㅂ. 글썩요

(129)ㄱ. /ak'ap-/ ‘아깁-’ → [agapʰ]

ㄴ. /nik'a/ ‘-니까’ → [niga]

ㄷ. /p'uli+ə/ ‘뿌리어-’ → [pure]

ㄹ. /əč'i-/ ‘어찌-’ → [əji-]

ㅁ. /ilč'ik/ ‘일찍’ → [iŋjik]

ㅂ. /kil's'e/ ‘글썩’ → [kilse]

(128)은 경음이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환경에서 평음화된 예들이다. (129ㄱ-ㄴ)

에서는 경음 /k/가 평음 [g]로 실현되고, (129ㄷ)에서 경음 /p/는 평음 [p]로, (129ㄹ-ㄱ)에서 경음 /č/는 평음 [č]로 된 다음 뒤에 오는 모음 /i/에 의해 구개음화되어 [j]로 실현된다. (129ㄴ)는 경음 /s/가 평음 [s]로 실현되었다.

(130)ㄱ. 왓크나

ㄴ. 느긴가구..휴,..... 메번말하게함다.?ㅈ ㅈ

ㄷ. 골이 왕~해 죽을번했음다...

(131)ㄱ. /wasɔ̃+kuna/ ‘왔구나’ → [wasgina]

ㄴ. /mjəč^h+pən/ ‘몇번’ → [mɛbən]

ㄷ. /l^h+pən/ ‘-ㄹ번’ → [lpən]

(130)은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환경에서 과도수정의 결과 경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음운 환경임에도 평음을 유지한 예이다. (131ㄱ-ㄴ)는 각각 음절말 자음 ‘스’와 ‘츠’ 뒤에서 평음 ‘k’와 ‘p’가 계속 평음을 유지하여 ‘g’와 ‘b’로 실현된 예이다. (131ㄷ)는 음절말 자음 ‘ㄹ’ 뒤에서 평음 ‘p’가 경음화를 겪지 않고 평음 ‘b’로 실현된 예이다.

3.3.6. 두음법칙과 관련한 현상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두음법칙⁴⁴⁾의 표기법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일부 발화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된 경우도 있으나, 학생이 주류를 차지하는 통신 언어 세대들은 거의 두음법칙을 겪지 않은 발화를 한다. 중국 통신 언어 환경에서 새로 나타난 음운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어의 음운 현상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만 제시하기로 한다.

44) 이익섭·이상억·채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95-96쪽.

한국어에는 이른바 두음법칙이라고 하여 어두에 어떤 음을 분포시키지 않는 규칙이 있다. 두음법칙의 예로 ‘ㄹ’뒤에 [i]나 반모음 [j]가 올 때엔 ‘ㄹ’을 탈락시키고 그 이외의 모음이 올 때에는 ‘ㄴ’으로 바꾸는 법칙, 구개음화된 ‘ㄴ’이 어두에 오지 못하는 법칙이 있다.

(132)ㄱ. 네? 려사의 한페지요? ㅎㅎ

ㄴ. 와,,진짜 울학교 리공학원하구 사범학원 그 사이 같습다!

ㄷ. 하하 내룡즈정⁴⁵⁾임다.ㅎㅎ

(132)는 단어의 첫 머리에 쓰이는 ‘ㄹ’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예이다. 두음법칙에 의하면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로 된다. 하지만,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에서는 ‘ㄹ’음이 탈락되지 않고 어두에서 탄설음화만 겪을 뿐 그대로 존재한다.

(133)ㄱ. 래일 다시 두구 보장~ 잉~ㅋㅋ

ㄴ. 너무 감동적이구, 또 선생질하면서 략을 찾았어

ㄷ. 룡담은 룡담이구 선물 받는것보다 선물 주기 싶스꾸마.

(133)은 단어의 첫 머리에 오는 ‘ㄹ’이 ‘ㄴ’으로 전환되지 않은 예이다. 두음법칙에 의하면 한자음 ‘라, 래, 로, 례, 루, 르’가 단어의 첫 머리에 올 적에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된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한국어에서는 ‘ㄹ’음이 그대로 적용된다.

(134)ㄱ. 녀자들 세상이고만^

ㄴ. 뇨소석꺄재?

ㄷ. 녀장자들과 뜨꺄?

(134)는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여, 요, 유, 이’로 되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ㄴ’음 그대로 존재한 예이다.

한국과의 교류가 밀접해 지면서 두음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휴대성 강화의 목적이 다분한 인터넷 통신 언어 환경에서 두음법칙의

45) 룡정(龍井)은 지명이다.

사용은 한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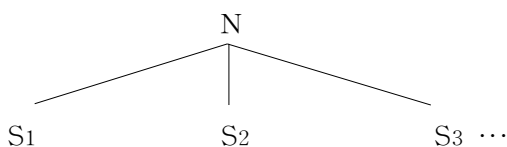
3.4. 의미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의 의미를 다의어, 관용적 표현, 의미의 결합 등 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4.1. 다의어

다의어(polysemant, polysemic word)는 하나의 명칭 N에 유연성(有緣性)을 지닌 여러 개의 의미 S1, S2, ..., Sn이 결합하고 있는 의미 구조를 말한다(심재기·이기용·이정민 1994: 29). 다의어는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로 구성된다. 기본 의미는 한 어휘가 지니고 있는 중심 의미이며, 파생 의미는 기본 의미에서 변저 나온 주변적인 의미이다. 다의어의 의미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다의어의 의미 관계



주: N은 명칭, S는 의미를 가리킴.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다의어를 고찰할 수 있다.

먼저, 통신 언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이

는 기존의 의미체계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135)ㄱ. 입장하다/들어오다 : 채팅에 참여함.

ㄴ. 도망가다/나가다 : 채팅방을 빠져나가다.

ㄷ. 뿌리다 : 메신저 주소나 파일 같은 것을 주는 것.

(135)는 채팅 문화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의미이다. (135ㄱ)의 ‘입장하다’는 (회장이나 식당·경기장 따위의) 장내에 들어감을 뜻하는데, 채팅방에서는 채팅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135ㄴ)의 ‘도망가다’는 잡히지 않으려고 자취를 감추다 는 뜻인데, 채팅방에서는 채팅을 그만두고 채팅방에서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135ㄷ)의 ‘뿌리다⁴⁶⁾’는 ‘물이나 물건을 흘다’는 뜻인데,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 같은 것을 공유할 때 뿌려준다고 한다. 한국 통신 언어 환경에서 새로 생겨난 의미는 훨씬 생산적이다.

(136)ㄱ. 공사중 : 어떤 부분을 미완성하였거나 편집 중임을 나타냄.<한국>

ㄴ. 문닫다 : 공개 방을 비공개 방으로 전환. <한국>

ㄷ. 자폭 : 대화방을 폐쇄하는 것. <한국>

ㄹ. 에벙키족 : 북극의 에스키모족에서 유래한 말로 썰렁하고 분위기 깨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 <한국>

(136ㄱ-ㄷ)는 임규홍(2000)에서 제시한 예이고, (136ㄹ)는 신희삼(2004)에서 제시한 예이다. 임규홍(2000)은 (136)의 현상을 메타언어(meta-language)로 분석하면서 통신 언어의 사용 층이 일반인이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우리말을 점점 살려 말들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신희삼(2004)은 (136)의 현상을 기존의 단어만을 갖고 새로운 개념을 만든 경우로 분석하였다. 중국 조선족 통신

46) [자동사][타동사] 눈이나 빗방울이 날려 떨어지다 ; [타동사] ① 물이나 물건을 흘다, ② 돈을 마구 쓰다,
③ 소문 따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환경에서 (136)의 현상은 한국에 비해 발전이 미미하며 수량도 적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 환경에서 비유적 의미로 쓰이다가 기존의 의미와 공존하면서 다의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137)ㄱ. 나비 : 리플 안 남기고 남의 글을 흘랑 보기만 하는 것.

ㄴ. 꺾말 : 공개하지 않고 사용자가 지정한 상대와 대화 내용을 주고받는 것.

ㄷ. 잠수/잠수중 :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상태.

ㄹ. 놀부 : 학교 안 다니거나 직장 없이 놀고 있음(한국어의 ‘백수’에 해당).

ㅁ. 도배⁴⁷⁾ : 같은 말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

(137)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단어이다. ‘나비’는 곤충의 일종으로서 꽃 사이를 옮겨 다니며 화분을 채집하는 행동특징이 있다. 인터넷 통신 환경에서 나비의 이러한 활동 특징을 내용물을 읽기만 하고 리플을 안 남기는 네티즌의 행동에 비유하여 ‘나비’라는 단어로 이러한 네티즌을 지칭한다. ‘꺾말’은 비밀스러운 말을 주고받을 때 귀에 대고 하는 꺾속말의 약칭이다. 대화방에서 ‘꺾말’은 공개 창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지정한 상대들끼리만 주고받는 대화를 가리킨다. ‘잠수’는 물속에 깊이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놀부’는 <흥부전(興夫傳)>에 나오는 놀부처럼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이미지의 사람을 말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백수의 의미로 쓰인다. ‘도배’는 종이로 벽이나 반자·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을 뜻인데, 인터넷에서 같은 말을 복사하여 반복 사용함을 가리킨다. 도배된 화면을 캡처하여 보여지면 <그림 5>와 같다.

47) <부록 그림 8>을 참조.

<그림 5> 도배 화면



<그림 5>에서 보면 ‘화쌍 여집원급히 모집합니다 의해잇은분 꺈말해주삼 좋은싸이트 에올... 만원당에 40원’이라는 문구가 화면 전체를 도배했다. 이런 경우, 관례에 의하면 채팅방에서 추방당하는 벌을 받는다.

(138)ㄱ. 여러분~~~여기메~윤미 이쁘지? 이 여자 둘도없는~메짚다

나. 어케 알앗스꾸마?

오우야~ 도사다야 그기누머 계룡산에서 도르닭구 왔으꾸마?

ㄷ. 가골이 완전 내북이다.

(138ㄱ)는 ‘윤미가 밍게 생겼다’는 말 대신에 ‘메주’라고 표현하였다. 메주는 손으로 주물러 모형을 빚고 일정 시간 발효하면서 겉모양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형

상을 이용하여 용모가 지나치게 못생겼을 때 ‘메주’로 표현한 것이다. (138ㄴ)는 ‘도사⁴⁸⁾’가 점술에 능하다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알리지 않았음에도 척척 잘 알아맞히는 사람을 ‘도사’라고 표현하였다. (138ㄷ)에서 ‘북’은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의 일종이다. 그런데 그 애의 머리가 나의 북이 되었다는 표현은 ‘나는 그 애의 머리를 마구 쥐어박았다’는 숨어진 의미를 추리해 내게 한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유적 의미로 쓰이다가 기존의 의미와 공존하면서 다의어를 형성한 통신 언어가 언급되었다.

(139)ㄱ. 번개해봤음?

아니 왜감당을 못함?? <한국>

ㄴ. 그래도 처리가 안되시면은 환경청 대화의 광장에다가

폭격을 하십시오.. <한국>

ㄷ. 물론 그러실분은 없겠지만 헉시라두 퍼가실분은 뭤날리구퍼가세영~<한국>

(139ㄱ)는 구현정(2002)에서 제시한 예이고, (139ㄴ-ㄷ)는 박동근(2002)에 제시된 예이다. 구현정(2002)는 (139)의 의미현상을 기존에 쓰던 단어의 개념들이 다른 개념으로 전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미 전이는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의 분리로부터 가능해진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번개는 ‘예상치 않은 갑작스런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의 뜻으로 쓰였다. 박동근(2002)는 (139)의 의미현상을 새말을 만드는 것만큼 기존 어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통신 언어의 특징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문맥에서 어떤 단어의 중심 의미를 잠시 보류하고 그 문맥에서만 짐작될 수 있는 연상 의미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용으로 하여 그 단어에는 기본 의미 외에 새로운 주변적 의미가 생겨나고 그 중 일부분은 조만간 의미상의 독립성을 획득하고 다의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적

48) ① 도를 닦는 사람. 도인(道人); ② 도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 ③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용상의 전이(shifts in application)라고 한다.

(140)ㄱ. 점심에 우리 엄마 전화와서 자기 한멜이 죽었다구...

ㄴ. 권장분이 한 고향 분이여서 넘넘 좋다!!!!이백프로지지~~~~

(140ㄱ)에서 ‘한멜’의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을 (141)로 표시할 수 있다.

(141) ‘한멜’의 의미자질

[+물질적 대상물]

[+인위적]

[-삶(-LIVING)]

[+매체]

‘죽다’의 의미자질은 (1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2) ‘죽다’의 의미자질⁴⁹⁾

X BECOME NOT LIVING

X [+LIVING]

‘한멜’은 [+LIVING]의 자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140ㄱ)의 문장 그대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한멜’의 사용중지된 상황을 어떤 생물체가 생물의 상태를 종식하게 되는 것에 비유하여 [+LIVING]자질을 부여해 주는 과정을 통하면 은유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140ㄴ)은 함축⁵⁰⁾의 의미를 추리해 내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140ㄴ)에서 ‘백프로’는 ‘전부’, ‘완전히’라는 뜻으로 앞의 ‘좋다’는 표현과 함께 해석해 볼 때 ‘만족하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백프로’가 ‘만족하다’는 의미라면 ‘이

49) 최재희 ‘한국어 의미론 강의’ 강의고 2005:132

50) Grice(1978)에서는 함축(含蓄, implicature)은 발화되는 문장의 일부분도 아니고 전제도 함의(含意, entailment)도 아닌데도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하여 암시되는 명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백프로’는 ‘더없이 만족하다’는 의미로 ‘넘넘 좋다’의 뜻을 적절히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한어(漢語)의 영향으로 기층어(基層語)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143) 데옥시리보즈처럼 생계갓꾸~

(143)은 생물학적 용어인 ‘데옥시리보즈’로 사람의 용모를 비교하였다. 형태적으로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데옥시리보즈’로 ‘사람 얼굴’을 묘사한 것은 ‘데옥시리보즈’의 ‘보즈’가 漢語에서 만두를 가리키는 ‘包子(paoč'i)’와 발음이 비슷한 이유로 만두처럼 통통하게 생겼다고 골려줄 때 ‘데옥시리보즈’라고 쓴 것이다.

3.4.2. 관용적 표현에 의한 의미

관용어는 “습관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표현”으로, 익은 말, 속어(熟語)라고도 한다. 관용어는 대중성, 광역성, 지속성, 역사성을 지님으로써 의사소통 수단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김미형 2005: 78). 관용표현은 구성되는 요소들의 의미와는 다른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히 익혀두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상황에 맞는 관용표현을 사용하면 급소를 시원하게 찌르는 효과가 있다(김동언 2005: 118).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는 기존에 있던 관용적 표현을 변형시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관용적 표현의 기본 형식은 변하지 않고,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용되는 내용물이나 형태소가 다르다. 결과, 표현하려는 의미가 그대로인 경우와 의미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먼저, 표현하려는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144)ㄱ. 귀 막고 방울 훑치기 <중국 성구>
코막고 치우떠우푸⁵¹⁾ 훑치기 <통신 언어>

- 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한국 속담>
 라면만 먹다가 쌀밥을 먹으니 둘이먹다가 둘다 웬져도 모를 정도<통신>
- ㄷ.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한국 속담>
담벼락도 눌러보고 건너뛰라! <통신 언어>

(144ㄱ)는 중국 성구 ‘귀를 막고 방울 훔치기(掩耳盜鈴)’를 본떠서 만든 말이다. ‘귀’ 대신 ‘코’, ‘방울’ 대신 자극성 냄새가 나는 음식 ‘취우떠우푸(臭豆腐)’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144ㄴ)는 음식이 아주 맛있음을 이르는 말인 한국 속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를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른다’로 변형시켜 아주 맛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죽다’ 대신 ‘웬지다’를 써서 강조와 유머의 감각을 살려주었다. (144ㄷ)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 뜻을 담고 있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을 ‘담(담벼락)도 눌러보고 건너뛰라’는 표현으로 변형시켰다. ‘돌다리’가 ‘담벼락’으로, ‘두들기다’가 ‘누르다’로, ‘건너다’가 ‘건너뛰다’로 대체 되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 의미는 변함이 없다.

- (145)A: 셔빨리 잡자는 사자를 건드렸다간 큰코 치셔
 B: 셔빨리 잡자는 고양이갯지.
 A: 지내 무척하구만
 사자하구 고내 어찌 아리까리⁵²⁾ 함두?

(145)는 대화의 형식으로 되었다. 중국 관용 표현에 ‘호랑이가 용을 쓰지 않으니 병든 고양이인줄 안다(老虎不發威當似病猫)’ 말이 있다. (145)에 나오는 대화는 이 관용 표현을 풀어서 한 말이다. 대화에서 A가 ‘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자, B는 ‘사자’가 아니고 ‘고양이’인 것이 아니냐고 야유한다. 이상의 예에서 보다시피 같은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

51) 두부의 일종으로 냄새가 자극적이다.

52) 아리까리하다: ‘헛갈리다’의 뜻.

가 돋보인다.

다음으로, 표현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표현하려는 의미가 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 (146)ㄱ. 쇠공이도 갈면 바늘이 된다 <중국 성구>
 빨도 열심히 깎으면 촉각이 된다!!! <통신 언어>
 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한국 속담>
 담배 세통도 피워야 중독~!! <통신 언어>

(146ㄱ)는 중국 성구 ‘쇠공이도 갈면 바늘이 된다(鐵鋤成針)’가 있다. 이는 꾸준히 노력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다. 통신 화자는 ‘쇠공이’ 대신 ‘빨’로써 ‘바늘’ 대신 ‘촉각’을 만든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동사 ‘갈다’ 대신 ‘깎다’가 쓰였다. 황당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써 기존의 적극적인 의미 대신 풍자와 야유의 뜻을 담고 있다. (146ㄴ)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한국 속담을 변형시켜 ‘담배 세 갑도 피워야 중독’이라고 하였다. ‘구슬’과 ‘보배’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이는 반면, ‘담배’와 ‘중독’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통신 화자는 나쁜 일도 반복해서 하지 않았으면 나쁜 일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 (147)말없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진달래꽃’ (마야)>⁵³⁾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시 고이 바라가시거라잉<통신 언어>

(147)은 한국 노래 <진달래꽃>의 가사를 변형시킨 예이다. ‘보내드리오리다’ 대신 ‘바라가시-’로 바꿔 표현 하였다.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에서 ‘바라가다’는

53)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 나오는 말인데, 중국 조선족인 경우 더 많이는 마야가 부른 한국 노래 <진달래꽃>의 가사로 알고 있다.

‘가거라’의 속된 표현이다.

이상의 예에서 보다시피 비슷한 형식을 이용하여 상반되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의미를 표현하여 참신하고 생동한 모습을 보여준다.

3.4.3. 의미의 결합

언어 형식 중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이다. 이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데, 형태소 의미의 합이 그대로 변화 없이 의미가 되기도 하고, 다른 제3의 뜻으로 의미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결합적 특성은 어휘 의미가 만나서 구를 이룰 때에도 마찬가지이다(김미형 2005: 77).

3.4.3.1. 의미의 합이 기본의미의 합으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 언어에는 기존의 의미 체계 내에서 의미들이 서로 결합한 의미의 합으로 된 단어들이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148)ㄱ. 권장 (주인장)

ㄴ. 공개창 (공개되어 진행되는 대화창)

ㄷ. 전번 (전화번호)

(148)은 한국어의 두 형태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148ㄱ)은 ‘주인’과 ‘장(長)’이 결합되어 ‘주인장’이 되고 다시 약칭 ‘권장’으로 되었다. (148ㄴ)은 ‘공개하다’의 어간 ‘공개’와 ‘창(窓)’이 결합되어 대화가 공개된 창구의 뜻인 ‘공개창’이 되었다. (148ㄷ)은 ‘전화’와 ‘번호’가 결합하여 ‘전화번호’로 되고 다시 약칭 ‘전번’으로 바뀌었다.

(149)ㄱ. 방가 : 만났을 때 하는 인사.

ㄴ. 추방⁵⁴주다 : 강제로 ‘쫓아내다’의 뜻.

(149ㄱ)는 한국의 통신 언어에서도 빈도높이 쓰이는 단어이다. ‘방가’는 ‘반가워요’라는 문장이 줄어서 된 단어이다. 첫 대면 인사로 많이 쓰인다. (149ㄴ)의 ‘추방주다’는 ‘추방을 주다’로 채팅방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화자를 채팅방에서 ‘쫓아’냄을 의미한다.

(150)골이 아가⁵⁵~~함다~~~

(150)의 ‘골’ 자체는 ‘아가’라는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나 ‘머리가 아파서 아가라는 소리가 튀어나온다’는 문장에서 ‘골이 아프다’는 의미를 얻는다면 (150)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통신 언어 환경에서 의미의 합으로 형성된 의미가 뛰어난 생산성을 보인다.

(151)ㄱ. 빠순이 : 오빠와 순이라는 여성적 이미지를 구체화시켜 만든 단어.<한국>

ㄴ. 손퓨터 : 손과 컴퓨터의 합성어로, 통계 등 컴퓨터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 수작업을 말한다.<한국>

ㄷ. 수행 : 행자가 되어 득행을 위해 힘쓰는 행위. <한국>

(151)는 신희삼(2004)에서 제시한 예이다. (151ㄱ)의 ‘빠순이’는 박철주(2006)에서도 논의 되었는데 의미의 형성 과정을 ‘빠+순→빠순+이→빠순이’로 보고 ‘광적인 여성팬’을 뜻한다고 분석하였다. (151ㄷ)의 경우 ‘아행행’, ‘행자⁵⁶’와 같은 파생의미들이 생산되어 있어 생산성을 보여준다.

54) ① (해가 되는 것을) 그 사회에서 몰아냄; ② 부적격자를 그 직장이나 직위에서 쫓아내거나 몰아냄.

55) 아플 때 튀어나오는 감탄사

56) 행자 : 아행행을 수행을 하는 사람, 아행행에 입문하여 아직 아행행의 깨달음(득행)을 이루지 못한 사람, 생활속에서도 닭기를 실천하는 사람.

(152)ㄱ. 챗방혼즈/챗방싸서우

(한국 통신 언어의 ‘페인’을 지칭)

ㄴ. 무시깐나?

(무시할래?)

ㄷ. 우~~~~~통쾌쓰라...

(아주 통쾌하다)

ㄹ. 나.자할게

(예, 추가할게요.)

ㅁ. 쭈즈했다

(거절했다.)

(152ㄱ-ㄴ)는 ‘한국어+한어(漢語)’의 형태에 의해 만들어진 명사형 단어이다. 중국어 단어인 ‘혼즈(混子)’는 건달의 의미이고 ‘싸싸우(殺手)’는 킬러를 가리킨다.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 ‘챗방혼즈’는 채팅방에 빈번히 참여하는 네티즌을 가리키고 ‘챗방싸싸우’는 채팅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네티즌을 가리킨다. (152ㄴ)는 ‘무시하다’의 어간 ‘무시’에 한어(漢語)의 동사 ‘깐⁵⁷⁾’이 결합되어 ‘무시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152ㄷ)는 ‘한국어+한어(漢語)’의 형태에 의해 만들어진 형용사형 단어이다. ‘통쾌하다’의 어간 ‘통쾌’와 한어(漢語)의 ‘쓰라⁵⁸⁾’가 결합되어 ‘통쾌해 죽겠다’, 즉 ‘아주 통쾌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152ㄹ-ㅁ)는 ‘한어(漢語)+하다’의 형태에 의해 만들어진 동사형 단어이다. (152ㄹ)에서는 한어(漢語)의 동사 ‘자⁵⁹⁾’에 ‘하다’가 결합되어 ‘추가하다’는 뜻을 나타냈고, (152ㅁ)에서는 한어(漢語) ‘쭈즈⁶⁰⁾’에 ‘하다’가 결합되어 ‘거절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57) 干 : ‘하다’는 뜻으로 [k’an]으로 발음된다.

58) 死了 : ‘죽다’의 뜻으로 [s’ilə]로 발음된다.

59) 加 : ‘추가’의 뜻으로 [č’ja]로 발음된다.

60) 阻止 : ‘거절’, ‘막다’의 뜻으로 [č’uči]로 발음된다.

3.4.3.2. 의미의 합이 제3의 의미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 언어에는 기존의 의미 체계 내에서 의미들이 결합한 의미의 합으로 작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153)즐 : ‘꺼져라’ 는 말.

(153)에서 ‘즐’은 ‘즐거운 채팅 되세요’라는 문장이 줄어서 단어로 굳어진 형태이다. 지금은 반감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면서 ‘빨리 꺼져라’는 의미로 변하여 타인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는 욕설로 사용된다.

통신 언어는 대화적 기능을 많이 하는 언어인 만큼 사용자들은 될수록 이면 재치 있고 흥미로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문자에만 의거하여 표현할 수밖에 없는 통신 언어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동원할 수 있는 연상적 효과를 많이 이용하려고 한다.

(154)ㄱ. 옆에파리앵앵하는구나

ㄴ. 엄마아페서짹짹 아빵앞에서 짹짹

엄마 한숨을 잡자면 아빠 주름살펴져라 ㅋㅋㅋㅋ

ㄷ. 개가 부산피우면서 잘한다던 플라톤님의말씀 맞나봐요.

나중에 푸짐이차려진 맛나는음식을 모두들 맛나게....

(154ㄱ)의 예는 ‘시끄럽다’는 표현 대신에 ‘파리가 앵앵 한다’고 표현하였다. 파리가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 표현으로 봐야 마땅하지만 아주 복잡한 환경임을 전제로 하였을 때는 지극히 생동한 표현이다. (154ㄴ)는 불쑥 어린이 노래를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합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애교를 부리는 상황임을 전제하였을 때 애교를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4ㄷ)는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한 대상이 분명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개

가 부산피우면서 잘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음식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의외로 잘했다는 상황맥락이 주어진다면 이 표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과장법은 실제 사물이나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는 수사법이다. 과장법에서 쓰인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나, 그를 통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김동언 2005: 232).

(155)ㄱ. 잉어가 눈감구자는걸 봤냐?

호랑이가 발을 뛰지던?

ㄴ. 짐이 몰몰 나는 밥을 짐과 온도를 다시 되찾아서 처리하면

쌀이 될수있으면 그것두 될수 있게

ㄷ. 캄첸슈이⁶¹⁾ 떡개루, 뒤골하나해달래

ㄹ. 뭐 니네엄마 쏘린쓰⁶²⁾가서 뭐 머리매개 판다드라

(155ㄱ-ㄴ)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황당하고 유치한 행동을 풍자하거나 기적 같은 일임을 강조하였다. (155ㄷ)는 작은 생수병 뚜껑으로 머리를 치겠다는 표현으로 어이없는 행동이나 말에 대한 느낌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155ㄹ)의 절에 가서 머리끈을 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정상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무의미하거나 황당한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을 골려줄 때는 적절한 표현 방법이다. 여기서의 상대방에 대한 야유를 표현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의미 전달의 수단이 되었다.

풍자와 야유도 통신 언어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잘 이용되는 방법이다.

(156)ㄱ. 디카가 먹는게무느 부시는 일종 티썬쿠⁶³⁾의 파이즈가 되리라...

ㄴ. 요기에지금 걸레가지구 부뚜막을 닦자는 사람이있어요 닥게 그만나들까요

61) 생수: 여기서의 생수를 담은 병을 가리킴.

62) 절의 명칭

63) 탄력이 뛰어난 바지의 일종.

ㄷ. 에디슨이 어릴때 닭알 품고 잇은적이 잇는 모내, 배오리 나오겠는가 해서

(156ㄱ)는 ‘디카⁶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몰라서 ‘먹는 것으로’ 착각한 상대방에게 ‘디카가 먹는 것이면 미국 대통령 부시는 바지의 한 종류’라는 말로 야유를 보낸다. (156ㄴ)는 용도를 잘 몰라서 헤매는 상대방을 ‘걸레로 부뚜막을 닦는다’고 야유를 보낸다. (156ㄷ)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상대방에게 ‘에디슨이 병아리를 까려고 계란을 품은’ 이야기로 야유를 보낸다.

64) 디지털 카메라

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 한국 외 한국어권(韓國語圈) 지역에서 사용되는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도 포함시켜 연구 대상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삼고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관련짓는 방법으로 표기상의 특징, 음운론적 분석, 의미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통신 언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신 언어는 인터넷 통신상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매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로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동원되는 모든 종류의 언어를 말한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기존 언어와 다름으로 하여 나타난 세 가지 특성은 익명성, 상징성, 평등성이다. 통신 언어의 매체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두 가지 특성은 속도성과 양방향성이다. 통신 언어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의한 나타난 세 가지 특성으로는 반 형식주의적 특성, 전통을 거부하는 특성, 다양성이다. 또한, 통신 언어의 사회 방언적 특성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제3장에서는 먼저 중국 조선족의 인터넷 통신 환경을 살펴보았다. 중국 조선족 인터넷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접속자수, 개설현황, 내용면에서 통신 언어가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둘째, 내용면에서 한국과의 의존관계 때문에 한국 홈페이지와 비슷한 구성을 보이지만 ‘한국, 중국, 조선족’이라는 세부 분류를 해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 성과와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표기, 음운, 의미의 세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표기의 측면에서 소리에 의한 표기방법, 형태에 의한 표기 방법, 문장부호에 의한 표기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고찰되었다.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

되었던 일련의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두 가지 다른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중국의 한어(漢語)를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과 한국어 문자로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고찰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漢語)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환경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둘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는 한국 통신 언어에 비해 훨씬 단순한 형태의 표기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 통신 언어는 기존 언어 상식의 파괴로 시작하여, 기호를 원용한 이모티콘, 더 나아가 특수 문자와 기호, 한자, 영어 등을 조합한 것으로 고찰되었는데 재미에 치우친 외계어로서 암호화 되다시피 복잡한 형태를 띤다. 반면에 이런 복잡한 표기방법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서 제목이나 아이디어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쓰이고 구체적 대화나 게시판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복잡한 정도도 한국 통신 언어에 비해 훨씬 덜하다.

음운론적 측면에서 탈락, 축약, 첨가, 동화, 경음화, 두음법칙과 관련한 현상을 고찰하였다. 음운론적 측면에서도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일련의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다섯 가지 다른 특징이 고찰되었다. 첫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음절말에 자음 /tʰ/, /kʰ/가 삽입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음절말 자음 /p/가 삽입되는 현상은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주 쓰이지 않았다. 둘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활음 /j/의 첨가현상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못하였는바, /e/에 첨가되어 [je]로 나타나는 현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어미 ‘-니까’에 /n/이 삽입되어 ‘-닌까’, ‘-닌깐’으로 되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한국 통신 언어에는 과잉적인 경음화 현상이 많이 이용되는 반면,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는 과잉적인 평음화 현상이 많이 존재한다. 다섯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에서는 탈락에 의한 어휘의 사용을 간간히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이 거의 없는 탈락현상이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다의어, 의미의 결합 현상, 기존의 관용적 표현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의미 현상을 고찰하였다. 다의어 현상, 의미의 결합 현상은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두 가지 다른 특징이 고찰되었다. 첫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는 새로운 의미의 생산성이 한국 통신 언

어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둘째, 중국 조선족 통신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와 중국의 한어(漢語)가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하는 방법이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이중 언어 환경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용적 표현을 변형시켜 사용하는 의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이용되고 있지만 연구에서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보류한다. 또한,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비속어에 대한 연구, 상징어에 대한 연구,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고의 논의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잠시 보류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외(外)에 거주하는 한국어 사용자들의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통신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문장 구조에 대한 연구, 비속어에 대한 연구, 상징어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까지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 참고문헌 >

- 강신항(1991). 『현대국어 어휘사용의 양상』, 태학사 .
- 강은국(1993). 『조선어 문형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 _____ (2004). 「해체주의 관점에서 본 통신언어의 언어유희」, 『기호학 연구』, 16, 한국기호학회 .
- 강희숙(1996). 「진도 방언의 /n/탈락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학』, 27, 국어학회 .
- _____ (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
- _____ (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출판사 .
- _____ (2003).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 『사회언어학』, 11.2, 한국사회언어학회 .
- _____ (2005).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모국어 교육 실태」, 『사회언어학』, 13.2, 한국사회언어학회 .
- 고위공(1992). 「대화적 텍스트 이해이론 정립의 시도-해석학, 소통적 담론이론, 후기 구조주의적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독일문학』, 49, 한국독어독문학회 .
- 구현정(2002). 「통신언어-언어 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 『국어학』, 39 .
- 권순희(2001). 「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 105, 한국어교육학회 .
- 권연진(2000). 「컴퓨터 통신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2, 한국언어학회.
- 김기종(2004). 「우리 말 외래어표기법의 변천과 당면한 문제점」, 『중국조선어문』, 2,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 김기혁(2001). 『국어학』, 박이정출판사 .
- 김동언(2005). 『국어표현론』, 월인도서출판 .
- 김미형(2005). 『인터넷 글쓰기의 달인』, 세종서적 .
- 김성훈·신성욱(2004). 「현대 정보문화 속에서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인터넷 환경에서의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디자인과학연구』, 7.1, 현대디자인과학학회 .
- 김태엽(2001). 『국어 중결어미의 문법』, 국학자료원 .
- 김정자(2004).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19 .
- 김영훈(2004). 「한국매체언어에 대한 수용선택」, 『중국조선어문』, 5,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
- 나찬연(2004). 『우리말 잉여표현 연구』, 월인도서출판 .
- 남기심·고영근(200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
- 리승자(2005). 「인터넷 채팅언어의 사용양상」, 『중국조선어문』, 03 .
- 림성호(2004). 「일본어어원의 차용어와 그 사용실태」, 『중국조선어문』, 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 박동근(2001).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 10, 한 말연구학회 .
- _____ (2002). 「통신언어의 생산성 연구」, 제14회 한말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_____ (2003). 「통신언어의 생성 방식에 따른 생산성 연구」, 『한말연구』, 12, 한말연구회 .
- 박영순(1985). 『한국어 통사론』, 집문당출판사 .
- _____ (1998). 『한국어 문법교육론』, 박이정출판사 .
- _____ (2000). 『한국어은유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 _____ (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박이정출판사 .

- 박철주(2006).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
- 배주채(1995).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 _____ (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 배진희·최원규(2004). 「청소년의 이모티콘(Emoticon) 사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1.2 .
- 송민규(2000). 「PC 통신 언어에 나타나는 음절 수 감소 현상에 대한 고찰-최적성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_____ (2001). 「PC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폐음절화의 경향」, 『국제어문』, 24, 국 제어문학회 .
- 신승용(2005). 「사회방언으로서의 통신언어의 위상 재정립」, 『한민족어문학』, 46, 한민족어문학회 .
- 신종희(2002). 「중학생 PC 통신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34, 국 어교육학회 .
- 신희삼(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휘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 어의미학회 .
- 심재기·이기용·이정민(1994). 『의미론서설』, 집문당 .
- 안동준(2004). 「탈구조주의와 국어교육」,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
- 엄기서·신순범(2004). 「인터넷 시각언어 이모티콘의 기호학적 해석과 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8,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
- 유학수(2001). 「러시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통신어의 언어학적 분석」, 『노어노문학』, 13.2 .
- 유제호(1990). 「言語學, 記號學, 通信理論을 통한 詩學의 方法論 摸索」, 『인문논총』, 20,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 윤상한(2003). 「컴퓨터 통신언어에 관한 고찰-한국어와 일본어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1, 동아시아일본학회 .
- 이경민(2002). 「통신언어의 국어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이광호(2004). 『국어 어휘 의미론』, 월인도서출판 .
- 이동진(2004). 「타이포그래피적 관점에서 본 CMC상의 TEXT유통에 관한 연구-통신 언어인 외계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민덕(2004). 『조선어 교수와 연구』, 역락도서출판 .
- 이석주·이주행(1994).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 이성연(1999). 『대화의 기법』, 조선대학교 출판부 .
- _____ (1999). 『중세국어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부 .
- _____ (2000). 「북한 고빈도어의 어휘 체계와 양상」,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 _____ (2003). 「중국에서 한국어의 언어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65, 한국어교육학회 .
- 이승후(2002). 「통신 언어의 특징과 문제점」, 『새국어교육』, 64, 한국국어교육학회 .
-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4.1, 한국언론학회 .
- 이익섭·이상익·채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 이정식(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도서출판 .
- 이정복(1997).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
- _____ (2000). 「통신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
- _____ (2003ㄱ).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도서출판 .
- _____ (2003ㄴ).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게시글에 나타난 통신 언어 분석」, 『한국어학』, 21, 한국어학회 .
- _____ (2004). 「인터넷 통신 언어 경어법의 특성과 사용 전략」, 『언어과학연구』, 30 .

- _____ (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
- 이종철(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역락도서출판 .
- 이주행(2005).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의 음운 실현 양상」, 『이중언어학회』, 28.
- 이진성(2003).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난 통신언어의 특징적 양상 비교」, 『사회언어학』, 11.2 .
- 임규홍(2000).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
- 임지룡(2001).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 장흥권(2005). 「우리말의 혼종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
- 전병용(2002).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대화방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1, 한국언어문화학회 .
- _____ (2004). 「게시판 언어의 국어학적 연구-방송사 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동양학』, 3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 전영근(2004). 「한국 현대시의 시행 구성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전영백(2005).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터모더니즘』, 조형교육 .
- 전재호·박태권(1995). 『국어표현문법』, 반도출판사 .
- 정진수(2005). 『컴퓨터 통신언어 연구』, 역락출판사 .
- 조열·이미용(2001). 「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도구, 이모티콘의 시지각적연구」, 『기초조형학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
- 최용호(2004). 「언어와 이미지-두 매체 사이의 관계 유형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16, 한국기호학회 .
- 최윤갑·전학석(1994). 『중국조선한국조선어차이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 최재희(1992). 「외래어 사용의 심리적 배경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상호·상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0, 한국언어문화회 .
- _____ (2000). 「국어 중복 표현의 유형과 의미 구조의 특성」, 『국어학』, 36, 국어학회 .

- _____ (2001). 『국어 교육문법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
- _____ (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 최창렬(1999). 『말과 의미』, 집문당 .
- 한동완(2003). 「言語媒體의 특성으로 본 인터넷 通信言語」,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 Grice, H. P.(1957).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1978).